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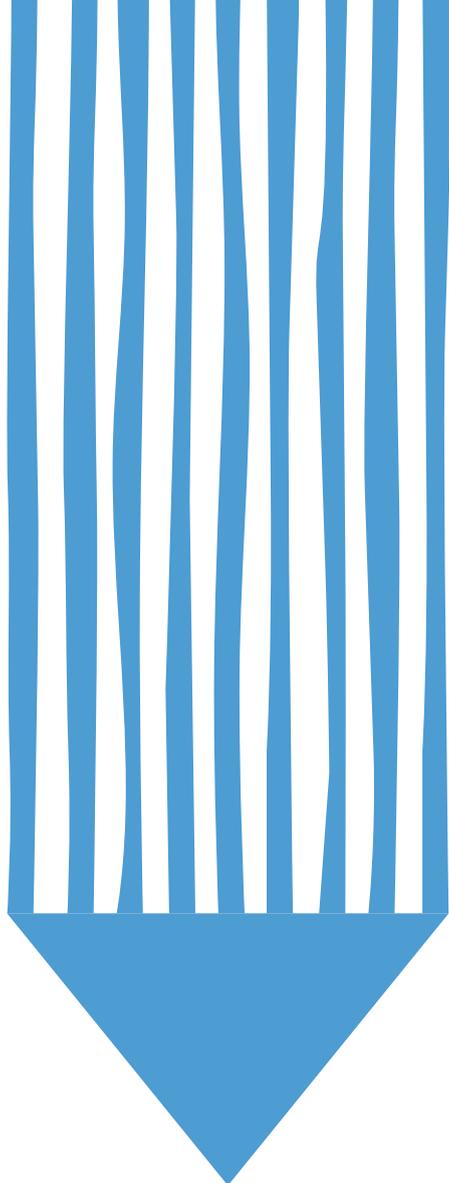


에듀원 콘텐츠 저작권 안내

(주)에듀원에서 제공하는 보충자료입니다. 아래의 콘텐츠 저작권 고지를 반드시 인지하시어 사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에 실린 모든 편집 구성 및 형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주)에듀원에 있으며,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재, 전송, 배포, 2차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콘텐츠 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타 사이트나 카페, 블로그, 웹하드, P2P 등 (주)에듀원으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온·오프라인에서의 공유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작권에 대해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 '1:1문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및 해설

100발
100중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고등영어

C

되근 후에 지쳐서 Amy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5) 그녀에 대해 들은 것이 먼저이므로 완료 분사구문이 되어야 하고, 생략된 주어와 능동 관계이므로 Having이 알맞다.

그녀에 대해 듣고 나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그리워했는지 깨달았다.

02 (1) 접속사를 생략하고 주절의 주어와 같으므로 주어도 생략한 후 부사절의 동사를 현재분사 형태로 쓴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원하는 직업을 얻었다.

(2) 분사구문의 부정은 분사 앞에 not을 쓰므로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한 후 현재 분사 being 앞에 부정어 not을 쓴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Andy는 취업 면접에서 대답을 멈칫거렸다.

(3)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설 경우 부사절의 동사를 완료 분사구문인 「having + 과거분사」로 쓰고, 「having been + 현재분사[과거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에서 having been은 생략할 수 있다.

우리는 그 호텔에서 대접을 잘 받았기 때문에 만족하며 그곳을 떠났다.

03 (1) 문맥상 이유를 나타내는 내용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접속사는 Because(As/Since)가 적절하고,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 가 달라 분사 구문에 주어 It이 쓰였으므로 부사절의 주어도 it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팀과 야구 경기를 하는 것을 연기했다.

(2) 문맥상 양보를 나타내는 내용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접속사는 Though[Although/Even though/Even if]가 적절하고, 주절의 주어와 동일하므로 주어는 I로 쓰고, 과거시제의 부정형이므로 didn't know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비록 이 상황에 대처할 방법을 몰랐지만 나는 결코 어떤 것도 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3) 문맥상 조건을 나타내는 내용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접속사는 If가 적절하고, 주절의 주어와 동일하므로 주어는 you로 쓴 후 현재시제인 order가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세트 메뉴를 주문하면 너는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

04 (1) 분사구문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서므로 완료 분사구문인 「having + 과거분사」로 쓴다.

(2) 분사구문의 주어 가 주절의 주어와 다르므로 생략하지 않는다.

G 교과서 핵심 문법 확인 문제 2

p.016

01 (1) Danny는 중간고사에서 모두 A를 받았다. 그는 매우 열심히 공부했음에 틀림없다.

(2) 엄마는 집에 안 계신다. 그녀는 아빠와 쇼핑을 하러 가셨을지도 모른다.

(3) 나는 학교 마라톤에 참가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4) 너는 외출하고 싶지 않다고 나에게 더 일찍 말했어야 했다.

02 (1) must have cheated on the test

(2) may have gone out

(3) cannot have been at home

(4) needn't have helped him when he was in despair

03 (1) must not (2) may (3) could (4) cannot

01 (1) must have + 과거분사: ~했음에 틀림없다

(2) may[might] have + 과거분사: ~했을지도 모른다

(3) could have + 과거분사: ~할 수도 있었다

(4) should have + 과거분사: ~했어야 했다

02 (1) must have + 과거분사: ~했음에 틀림없다

(2) may[might] have + 과거분사: ~했을지도 모른다

(3) cannot have + 과거분사: ~했을 리가 없다

(4) need not have + 과거분사: ~할 필요가 없었다

03 (1) 문맥상 '~하지 않았음에 틀림없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must not have +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Victoria는 그냥 떠나 버렸다! 그녀는 우리가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음에 틀림없다.

(2) 문맥상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may[might] not have +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그 어린 소녀는 '어린 왕자'를 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심지어 그 제목도 모른다.

(3) 문맥상 '~할 수도 있었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could have +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우리는 어제 집에 있었지만, 외출할 수도 있었다.

(4) 문맥상 '~했을 리가 없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cannot have +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그녀는 그 공포 영화를 봤을 리가 없다. 그녀는 심지어 유명한 집도 좋아하지 않는다.

R 교과서 기타 지문

p.021

01 T 02 F

01 우리는 각각의 속담을 비슷한 뜻을 지닌 영어 속담과 연결시킬 수 있다.

02 배짱이의 노래와 춤 때문에 개미는 음식을 찾을 수 없었다.

R 교과서 핵심 본문 다지기

p.022-023

01 경험	02 haven't you?	03 속편	04 getting
05 옛날 옛적에	06 의문사절[간접의문문]	07 knowing	
08 훨씬	09 relax	10 continuing	11 fell asleep
12 walking	13 had lost	14 losing	15 자아 성찰, 반성
16 have tried	17 had been	18 전력을 다했다	
19 멈추지 않고	20 from	21 ~의 차이로	
22 차례	23 After he[the tortoise] lost the race	24 관계부사절	
25 ~한 방식으로	26 keeping	27 to go	28 전속력으로
29 the other	30 wondering	31 Meanwhile	
32 walking[to walk]	33 Even though[if]	34 had become	
35 꽤	36 could have been	37 much[even, far, still]	
38 as	39 넘겨받았다, 떠맡았다	40 with the hare on his back	
41 reached	42 had felt	43 whether	44 do

T 내신 1등급 대비 1회

p.024-035

01 ②	02 ③	03 ③	04 soap	05 ②
06 (m)atter	07 going all out	08 ③	09 ②	
10 What if it rains?	11 ②	12 ④	13 ③	
14 I don't know what that means.	15 ②	16 ③	17 ⑤	
18 ①	19 ③			
20 (Having been) Invited to the party by Harry himself				
21 ⑤	22 ④	23 ⑤	24 ④	
25 (1) cannot have seen it yesterday				
(2) should have kept my mouth shut and pretended				
26 before falling asleep	27 should → shouldn't	28 ①	29 ③	
30 While slowly walking on and on	31 ①	32 ④	33 ③	
34 ⑤	35 turn	36 ④		
37 no way he could beat the hare, the way it was currently designed				
38 ③	39 (o)pposite	40 ①	41 ⑤	
42 with the hare on his back	43 ③	44 ⑤		
45 spent the whole morning reading the report				

01 ②는 반의어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의어 관계이다.

- ① 이기다 ② 유죄의 : 무죄인 ③ 조심스러운
- ④ 양 ⑤ 약간, 조금

- 02 ③ '명확한 결정이나 선택을 하지 못하는'은 indecisive(우유부단한)에 어울리는
영역 풀이이므로 decisive(결단력 있는)는 적절하지 않다.
- ① 경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의 길
② 독, 제방: 강이나 호수 가를 따라 있는 땅
④ 성급한: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너무 빠르게 행동하는
⑤ 강점, 장점: 누군가나 무언가에게 이점을 주는 특별한 자질이나 능력
- 03 person은 '사람, 인물'이라는 뜻으로 연극에서의 등장인물을 의미하므로 '등장
인물'이라는 의미의 character와 바꿔 쓸 수 있다.
Reese는 연극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이다.
① 글, 기사 ② 내용, 주제 ④ 조리 도구 ⑤ 칭찬
- 04 ① sequel(속편): 이전 책 등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책, 영화, 또는 연극
② overtake(추월하다): 이동하고 있는 차량이나 사람보다 당신이 더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 앞에 있는 그것들을 지나쳐 가다
③ argument(말싸움):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흔히 화가 나서 동의하지 않는 상황
④ positive(긍정적인): 어떤 상황에서 좋은 것을 생각하는
- 05 ② '그녀의 주요한 약점은 그녀의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다.'는 문맥상 어색하므로
weakness(약점)를 strength(강점)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③ 나는 우리가 경기를 매우 잘했음에도 졌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④ 우리는 현재 살인이 일어난 시간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갖고 있다.
⑤ 그 당시에 여성은 테니스에서 남성을 결코 이길 수 없다고들 했다.
- 06 matter: 중요하다; 문제
• 실제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 Rick은 특히 재정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 07 '전력을 다하다'는 go all out으로 표현한다.
- 08 상대방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한번 말해 줄 것을 요청했으
므로 빈칸에는 성급한 성격의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③은 '나는 네가 좀 더 침착해야 한다고 생
각해'라는 의미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내 말은 네가 열정적이라는 뜻이야
② 내 말은 네가 모든 일을 매우 빨리 해낸다는 뜻이야
④ 너는 마감일을 넘긴 적이 결코 없다는 뜻이야
⑤ 네가 시간 관리를 정말 잘한다는 뜻이야
- 09 I don't think that's necessary.는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라는
의미로 상대방의 제안에 반대하며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할 때 쓰는 표현이다.
- 10 '~이라면 어찌지?'는 「What if + 주어 + 동사」로 표현한다.
- 11 두 사람은 내일 갈 예정인 캠핑을 위해 싸야 하는 짐을 확인해 보고 있으므로 ②
는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12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D) 어떤 것을 처음 시작할 때 시간이 걸
린다고 자신의 약점을 말하고 (B) 그것이 강점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보라고
하자 (A)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한번 말해 줄 것을 요청하고 (C)
그것은 느린 것이 아니라 신중할 것을 의미한다고 대답하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 13 "Let bygones be bygones."는 '지난날은 지난날이다'라는 뜻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나쁜 일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③ remember를
forget으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4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라는 의미로 상대방이 한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다
시 한번 말해 줄 것을 요청할 때는 I don't know what that means.로 표현한다.
- 15 지난 일은 잊어버리라고 조언을 해 주고 있는 대화이므로 대화의 요지로는 ② '다
리 아래에는 모두 물이다(다 지난 일이다)'가 적절하다.
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③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④ 느려도 천천히 하면 이긴다.
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16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으며 접속사를 생략한 후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와 시제가 같으므로 주어를 생략하고 부사절의 동사를 현재분사로 바꿔 써야
한다.
Lena는 벨이 울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피자를 받기 위해 문을 열었다.

- 17 ⑤는 문맥상 '~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과거의 후회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빈칸에는 shouldn't가 적절하다. ①③은 요청이나 제안의 can[could], ②는 허
락의 can[could], ④는 '~할 수도 있었다'는 의미의 「could have +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① 내 고장 난 자동차를 고쳐 줄 수 있니?
② 승객들은 배에 있는 침대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잠시만 휴대 전화를 꺼 줄래?
④ 너는 그 당시에 입을 다물 수도 있었다.
⑤ 나는 또 실패했다.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았
어야 했다.
- 18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꿔 쓸 때 접속사를 생략하고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
으면 생략할 수 있는데 ①은 부사절의 주어(you)와 주절의 주어(I)가 다르므로
you를 생략할 수 없다.
① 네가 수학을 못하면 내가 도와줄게.
② 그는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역도를 그만두어야 했다.
③ 그녀는 바빴기 때문에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④ 그녀는 피곤했지만 내일 있을 시험공부를 계속했다.
⑤ 기계가 과학 실험실에 있다면 그것은 시간과 노력을 덜어 줄 것이다.
- 19 ③은 문맥상 '~했을 리가 없다'는 의미가 자연스러우므로 「cannot have + 과거
분사」가 되도록 빈칸에는 cannot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⑤는 '~해야 한
다'는 의미의 must, ②는 '~임에 틀림없다'는 의미의 must, ④는 '~했음에 틀림
없다'는 의미의 「must have +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① 너는 입구 앞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② 너는 그렇게나 걸었으니 지쳐 있음에 틀림없다.
③ 그는 며칠 동안 휴식을 취했다. 그는 그렇게 바빴을 리가 없다.
④ 모든 사람들은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도착했음에 틀림없다.
⑤ 네가 계속해서 시끄럽게 하면 나는 너에게 도서관을 떠나도록 요구해야 한다.
- 20 접속사는 생략하고,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와 같으므로 생략한 후 부사절
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서므로 「having + 과거분사」로 써야 한다. 이때 분
사구문이 「having been + 과거분사」로 시작하므로 having been은 생략할 수
있다.
그들은 Harry에게 직접 파티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을 거절하기
힘들었다.
- 21 ⑤는 문맥상 '전등이 모두 갑자기 나갔다. 그녀는 무서웠음에 틀림없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했음에 틀림없다'는 의미의 「must have + 과거분
사」가 되도록 빈칸에는 must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문맥상 '~해야 한다'는 의미가 적절하므로 조동사 should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Mindy와 나는 우리가 진실을 폭로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
② '~했어야 했다'는 후회의 의미이므로 「should have + 과거분사」의 형태가
되도록 빈칸에는 should가 적절하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에게 관심을 더 기울였어야 했다.
③ 충고를 나타내는 동사 advise가 나오고 있으므로 that절은 「(should) + 동사
원형」의 형태가 되도록 빈칸에는 should가 적절하다.
그는 그 문제가 즉시 정정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④ '~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후회의 의미이므로 「should not have + 과거분사」
의 형태가 되도록 빈칸에는 should가 적절하다.
내 여동생은 다시 길을 잃었다. 나는 그녀가 혼자 가도록 허락하지 말았어야
했다.
- 22 ① 그녀는 그 유명한 장소 근처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 (As → Though/Although/Even though/Even if)
② 그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않기 때문에 캠핑가를 살 수 없다. (earns not →
doesn't[does not] earn)
③ 나는 숙제를 돌려받지 못해서 선생님께 다시 여쭙봤다. (Though →
As/Because/Since)
④ 우리는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연습하면서 많은 다채로운 물고기를 봤다.
⑤ 나는 이길 가능성이 없어서 실망했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을 청했다.
(disappointed → was disappointed)

- 04 ③ go all out은 '전력을 다하다'는 의미이다.
 ① 만약을 위해서 오늘 일손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② 우리가 그를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③ 나는 그들이 끝까지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④ 나는 산을 오르는 동안 비를 만났다.
 ⑤ 내가 휴가 중일 때 Sophia가 Joel에게서 넘겨받을 것이다.
- 05 compliment: 칭찬; 칭찬하다
 • Nicole과 비교되는 것은 대단한 칭찬이다.
 • 코치는 너무 긴장해서 팀원들을 칭찬하는 것을 잊었다.
 ① 단서 ② 중요하다; 문제 ③ 추월하다 ④ 경로
- 06 passionate(열정적인): 매우 강렬한 느낌이나 감정을 지니고 있는
- 07 <보기>와 ①의 character는 '성격'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그녀의 남동생은 성격이 좋고 동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
 ① 전쟁 동안의 그의 행동은 그의 성격을 보여 줬다.
 ② Anne은 소설에서 가장 호감이 가는 등장인물 중 하나이다.
 ③ 각각의 집단은 Elsa 같은 허구적 등장인물의 이름을 따른다.
 ④ 액체는 고체와 기체 둘 다와 특징이 다르다.
 ⑤ 그녀의 여성 등장인물은 흔히 다른 여성과 강하고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
- 08 자신이 너무 감정적이지 않은지 동의를 구하는 남자의 말에 여자가 그건 당신이 배려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⑤는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라는 뜻이므로 빈칸에 적절하지 않다.
- 09 캠핑에 가져갈 짐을 점검하면서 만약을 위해서 우산을 가져가자고 제안하는 상황이 자연스러우므로 ⑥ exclude(제외하다)를 take(가지고 가다)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0 주어진 문장은 '걱정하지 마'라는 내용으로 비가 오면 어쩌냐고 걱정하는 내용 뒤에 나와 일기예보에서 날씨가 좋을 거라고 했다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주어진 문장은 ④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1 서로의 짐을 점검하다가 화제를 돌리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④ '그런데, 그건 그렇고'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있잖아 (무엇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
 ② 게다가
 ③ 내 생각에는
 ⑤ 믿기 힘들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 12 너의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C) 내 생각에 나는 자주 성급하다고 답하고 (A)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라는 조언에 (D) 그게 무슨 말인지 묻고 (B) 내 말은 너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빠르다며 그건 장점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대화의 순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 13 앞에 선행사 bad things가 나오고 뒤에는 주어가 없는 문장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을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 which[that]로 고쳐 써야 한다.
- 14 어제 시험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준수에게 과거의 나쁜 일은 잊어버리라고 충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빈칸에는 ② '지난날은 지난날이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③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④ 모든 구름의 뒤편은 은빛으로 빛난다. (괴로움 뒤에는 기쁨이 있다.)
 ⑤ 손 안에 든 새 한 마리는 풀솜에 있는 두 마리 새의 가치가 있다.
- 15 여자의 의견에 남자가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남자의 제안은 무엇인지 묻는 표현이 되도록 빈칸에는 '제안하다'라는 뜻의 suggest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6 ⑤ 분사구문의 부정형은 분사 바로 앞에 not을 써야 하므로 Not know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① 그의 집 근처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자주 보지 않는다.
 ② Anna를 기다리면서 나는 그녀의 또 다른 친구를 봤다.
 ③ 오른쪽으로 돌면 병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④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Karen은 자신의 주말 계획을 이야기했다.
 ⑤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는 말문이 막혔다.

- 17 (1) 문맥상 '~했어야 했다'는 후회의 의미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should have +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나는 언제나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나는 더 구체적이었어야 했다.
 (2) 문맥상 '~했음에 틀림없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must have +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땅에 있는 물을 봐. 어젯밤에 정말 비가 심하게 내렸음에 틀림없어.
- 18 접속사는 상황에 따라 생략하고,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같으므로 주어는 생략한 후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서므로 완료 분사구문인 「Having + 과거분사」로 써야 한다.
 여왕에게 머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고 난 후에 그는 그의 견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 19 문맥상 우산을 챙길 필요가 없었다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의 「need not have +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Ian은 비가 내릴 거라 생각해서 우산을 챙겼다. 그러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그는 우산을 챙길 필요가 없었다.
 ① 우산을 챙겼을지도 모른다
 ② 우산을 챙겼을 것이다
 ③ 우산을 챙겼어야 했다
 ⑤ 우산을 챙겼을 리가 없다
- 20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다르므로 주어는 생략할 수 없고 5단어로 써야 하므로 접속사는 생략한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면 우리는 오후 1시쯤 야영장에 도착할 것이다.
- 21 '~이었을 것이다'는 추측은 「would have + 과거분사」로 표현한다.
- 22 문맥상 '결과에 만족했기 때문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 적절하고, 분사구문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주어가 만족하는 주체이므로 과거분사 satisfied로 고쳐 써야 하며 앞의 be동사는 현재분사인 Being으로 써야 한다. 이때 분사구문이 「being + 과거분사」로 시작하므로 being은 생략할 수 있다.
 Kate는 결과에 만족했기 때문에 계속 웃지 않을 수 없었다.
- 23 (1) 문맥상 '~할 필요가 없었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need not have + 과거분사」로 고쳐 써야 한다.
 너는 꽃에 물을 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2) 문맥상 '~했어야 했다'는 후회의 의미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should have + 과거분사」로 고쳐 써야 한다.
 몇 년 전 나는 주저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야 했다.
- 24 ①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다르므로 Being fine을 주어를 생략하지 않은 It being fine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① 날씨가 좋으면 우리는 소풍을 갈 것이다.
 ② 문으로 걸어가면서 그녀는 그들에게 저녁 식사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③ 운동을 끝냈기 때문에 나는 달리 할 일이 없다.
 ④ 그 노래를 모른다면 너는 그 밴드의 진정한 팬이 아니다.
 ⑤ 시험지가 빨리 작성됐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 25 문맥상 '~했음도 모른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might have + 과거분사」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수용의 기술은 너에게 방금 작은 호의를 베푼 누군가가 너에게 더 큰 호의를 베푼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 26 have를 현재분사인 having으로 고쳐 쓰고, 분사구문의 부정형이므로 Not having으로 써야 한다.
- 27 (1) '~했음도 모른다'는 「may[might] have + 과거분사」로 표현한다.
 (2) '~할 수도 있었다'는 「could have + 과거분사」로 표현한다.
- 28 (A) 부가의문문으로 주절이 긍정문이고 조동사 have가 있으므로 haven't가 적절하다.
 (B) 앞에 접속사와 주어가 없으므로 분사구문이 되어야 하고, 주어와 동사가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knowing이 적절하다.
 (C) 경주에 진 것이 깨달은 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대과거 had lost가 적절하다.
- 29 (a) 문맥상 '~하기 전에'라는 의미가 자연스러우므로 접속사 Before를 쓰고 주절과 같은 주어는 생략하며 주어와 동사가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getting으로 써야 한다.

- (b) 문맥상 '~하기 전에'라는 의미가 자연스러우므로 접속사 Before를 쓰고 주절과 같은 주어는 생략하며 주어와 동사가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continuing으로 써야 한다.
- (c) 문맥상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가 자연스러우므로 접속사 While(As)을 쓰고 주절과 같은 주어는 생략하며 주어와 동사가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walking으로 써야 한다.
- 30 뒷부분에 잠에서 깬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나무 아래에 앉아 잠이 들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잠이 들었다'는 의미의 fell asleep이 되도록 ④ down을 asleep으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31 쉬지 않고 천천히 계속 걷는 거북이 경주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요지로는 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면 이긴다.'가 적절하다.
- ②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③ 까리까리 모인다. (유유상종)
④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⑤ 행운은 차례대로 우리 문을 두드린다. (쥐구멍에도 벌레 날이 있다.)
- 32 '몇 마일 차이로 이겼다'는 내용이므로 '~의 차이로'라는 의미가 되도록 ④ against를 전치사 by로 고쳐 써야 한다.
- 33 (A) 뒤 문장에서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으므로 self-questioning(반성)이 적절하다. (self-defense: 자기 방어)
(B) 토끼가 거북에게 또 다른 경주를 도전했고, 경주가 시작되어 토끼가 이겼다는 내용으로 보아 거북이 토끼의 도전에 동의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agreed(동의했다)가 적절하다. (refuse: 거절하다)
(C) 경주의 결과 토끼가 몇 마일 차이로 이겼다고 했으므로 result(결과)가 적절하다. (cause: 원인)
- 34 '-했어야 했다'는 「should have + 과거분사」로 표현하고, '그 당시에, 그때'는 at that time으로 표현한다.
- 35 '전력을 다하다'는 go all out으로 표현하고, '-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로 표현한다.
- 36 ㉔는 '거북(the tortoise)'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토끼(the hare)'를 가리킨다.
- 37 빨리 달리고 멈추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전속력으로 달렸다는 의미가 자연스러우므로 '약속을 지키다'는 의미의 keep one's promise가 되도록 ② breaking을 keeping으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38 (A)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며'라는 의미의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TV를 보면서'라는 의미의 ②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① 몹시 버릇없이 굴었기 때문에 그는 벌을 받아야만 한다. (이유: ~ 때문에)
② TV를 보면서 그녀는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동시동작: ~하면서)
③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기 전에 당신은 균형을 잡는 방법을 배우야만 한다. (때: ~하기 전에)
④ 다른 스웨터들과 비교해 보면 이 새 스웨터는 더 따뜻하다. (조건: ~라면)
⑤ 여러 해 동안 그곳에 근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사에서 중요 인물은 아니다. (양보: ~에도 불구하고)
- 39 '~한 방식으로'는 「the way + 주어 + 동사」 형태의 관계부사절을 이용하고 Tom이 미소를 지은 것보다 그녀가 그가 미소 짓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이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관계사절의 시제는 과거완료로 쓰며 각각동사는 「지각동사(see) + 목적어 + 목적격보어(동사원형)」의 형태로 쓴다.
- 40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가 되어야 하므로 ① very를 much, still, far, even, a lot 등으로 고쳐 써야 한다.
- 41 강둑에서 건너편 강둑까지 거북이 토끼를 업고 수영했고 건너편 강둑에서 토끼가 다시 거북을 업고 함께 결승선에 다다랐다고 했으므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42 '~할 수도 있었다'는 「could have + 과거분사」로 표현한다.
- 43 (A) find는 「find + 목적어 + 목적격보어(현재분사)」로 표현하므로 현재분사 dying이 적절하다.
(B) 그저 노래하고 춤만 쳤다는 의미이므로 '오직, 그저 ~일 뿐인'이라는 의미의 nothing but이 되도록 nothing이 적절하다.
(C) 뒤에 나오는 is가 문장의 동사로 주어가 없으므로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Gathering이 적절하다.

- 44 그날 이후로 배짱이와 개미는 함께 일을 하게 되었고 서로의 일을 가볍게 하기 위해 각자의 재능을 기부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A를 B하는 데 기여하다'는 의미의 contribute A to B의 형태가 되도록 빈칸에는 ④ contributed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낭비했다 ② 발견했다 ③ 개발했다 ⑤ 설명했다
- 45 8단어로 써야 하고, 이 글에 쓰인 표현을 이용해야 하므로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은 분사구문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할 수 있고 '~을 가지고 놀다'는 play around로 표현한다.

수능형으로 끝내기

p.048-053

- | | | | | | |
|------|------|------|------|------|------|
| 01 ② | 02 ④ | 03 ③ | 04 ② | 05 ⑤ | 06 ③ |
| 07 ① | 08 ⑤ | 09 ③ | 10 ④ | 11 ② | 12 ④ |
| 13 ③ | 14 ③ | 15 ④ | 16 ③ | 17 ④ | 18 ④ |
- 01 ㉔㉕ 모두 앞 문장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역접의 연결어 However(그러나)가 적절하다.
① 그러나 예를 들어
③ 다시 말해 비슷하게
④ 다시 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⑤ 대신 따라서
- 02 조동사 would 뒤에 나온 동사원형 sit과 등위접속사 and로 이어진 병렬 관계이므로 ④ relaxed를 동사원형인 relax로 고쳐 써야 한다.
- 03 주어진 글은 거북과 토끼가 경주를 논쟁을 끝내기로 했다는 내용이므로 (B) 경주에 대해 동의하고 경주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고 (C) 토끼가 경주 도중에 잠시 쉬어 가기로 생각해서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다는 내용이 이어지며 (A) 토끼가 잠이 든 동안 거북이 경주를 끝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순서가 자연스럽다.
- 04 (A)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했어야 했다'는 의미의 「should have + 과거분사」의 형태가 되도록 should가 적절하다.
(B) 실망한 것보다 자만한 것이 더 이전의 일이므로 대과거 had been이 적절하다.
(C) several은 복수명사와 쓰이므로 miles가 적절하다.
- 05 주어진 문장은 '이번에는 거북이 이야기를 계속할 차례이다.'라는 내용으로 토끼가 경주에서 이겼으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내용 뒤에 이어지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주어진 문장은 ⑤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6 ㉔ 앞 문장의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accordingly(그래서)가 적절하다.
⑥ 앞 문장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However(그러나)가 적절하다.
① 그러나 그에 반해서
② 그러나 그러므로
④ 예를 들어 다시 말해서
⑤ 그래서 마찬가지로
- 07 선행사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 함께 쓸 수 없으므로 ① how를 삭제해야 한다.
- 08 (A) 거북이 현재의 방법으로는 토끼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이므로 defeat(이기다)가 적절하다. (defend: 방어하다)
(B) 빨리 달리고 멈추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전속력으로 달렸다는 의미이므로 '전속력'이라는 의미의 full speed가 되도록 full이 적절하다. (at low speed: 저속으로)
(C) 거북이 토끼를 앞지른 것이므로 '추월하다'는 의미의 cast behind가 되도록 cast가 적절하다. (fall behind: ~에 뒤지다)
- 09 토끼는 강에 도착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며 그곳에 앉아 있었다고 했으므로 ③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10 (A)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할 수도 있었다'는 의미의 「could have + 과거분사」의 형태가 되도록 could가 적절하다.
(B) reach는 타동사로 뒤에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가 오므로 reached가 적절하다.
(C)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시제가 미래를 대신하므로 do가 적절하다.

- 11 토끼와 거북이 팀으로 마지막 경주를 마치면서 이전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요지로는 ② '많은 일손이 일을 더 가볍게 만든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가 적절하다.
- ① 자신은 집에서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에 앞서 가족부터 보살피라.)
 ③ 삶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④ 모험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⑤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친구가 되는 것이다.
- 12 토끼와 거북이 서로 힘을 합친 마지막 경주 후에 둘 다 이전에 느꼈던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꼈다는 교훈을 주고 있으므로 글의 어조로는 ④ '교훈적인'이 적절하다.
- ① 비판적인
 ② 익살스러운
 ③ 회의적인
 ⑤ 미안해하는
- 13 ㉠ 접속사 뒤에 주어와 없으므로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은 분사구문으로 보아 had를 having으로 고쳐 쓰거나 부사절로 보아 had를 he(the grasshopper) had로 고쳐 써야 한다.
- 14 주어진 문장은 '베짱이는 그의 행운을 믿을 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베짱이가 식량이 다 떨어져 굶어죽기 직전에 개미가 식량을 들고 방문했다는 내용 뒤인 ③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5 (A) 앞 문장의 내용과 대조되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On the contrary(그와는 반대로)가 적절하다.
 (B) 앞 문장의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Thus(그러므로)가 적절하다.
- ① 그러나 그에 반해서
 ② 다시 말해서 비슷하게
 ③ 게다가 그러나
 ⑤ 그와는 반대로 요약하면
- 16 함께 일하며 서로의 일을 가볍게 하기 위해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을 기여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빈칸에는 ③ '재능'이 적절하다.
- ① 생각들
 ② 음식
 ④ 체계
 ⑤ 특징
- 17 여름에 개미에게 식량을 모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내용은 나오지만 겨울에 식량을 모으는 것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으므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18 개미가 베짱이의 노래와 춤을 고마워한 뒤로 둘은 함께 일하며 서로의 일을 가볍게 하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기여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요지로는 ④ '바보도 칭찬해 보라, 그러면 쓸모 있게 된다.'가 적절하다.
- ① 건강한 사람에게는 매일이 축제이다.
 ② 빈 수레가 요란하다.
 ③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우하라.
 ⑤ 현명한 사람은 실수로부터 많이 배운다.

서술형으로 끝내기

p.054-056

- 01 when[after] he knew that he was far ahead of the tortoise
 02 asleep
 03 As soon as the race starting
 04 I should have called you before I left the restaurant.
 05 (1) ① → After losing the race (2) ④ → wondering what to do
 06 currently
 07 There was no way he could justify the war any more.
 08 (1) ④ → had felt earlier (2) ⑤ → If they do
 09 Some could have been hurt.
 10 He was lying on the sofa with the book in his hand.

- 01 밑줄 친 부분은 분사구문으로 문맥상 '~하고 나서' 혹은 '~한 후에'라는 의미이므로 접속사 when[after]을 이용해 부사절로 바꿔 쓸 수 있다.
- 02 문맥상 '잠이 든, 자고 있는'이라는 의미가 자연스러우므로 asleep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나는 방금 일어나서 여전히 비몽사몽이다.
- 03 접속사 As soon as는 그대로 쓰고,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다르므로 주어 the race를 생략할 수 없으며 동사 started를 현재분사인 starting으로 바꿔 쓴다.
- 04 '~했어야 했다'는 「should have + 과거분사」로 표현한다.
- 05 ①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은 분사구문이므로 lost를 현재분사 los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④ 앞에 접속사가 없고 문맥상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며'라는 의미의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므로 wondered를 현재분사 wonder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06 문맥상 '현재, 지금'이라는 의미의 currently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Kevin은 현재 고등학교 야구 코치로 일하고 있다.
- 07 '~할 방법이 없었다'는 there was no way ~ 구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 08 ④ 이전에 느낀 것이 더 큰 만족감을 느낀 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felt를 대과거 had felt로 고쳐 써야 한다.
 ⑤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시제가 미래를 대신하므로 will do를 do로 고쳐 써야 한다.
- 09 '~할 수도 있었다'는 「could have + 과거분사」로 표현하고 '상처를 받은' 것이므로 수동태로 표현한다.
- 10 '~한 채'는 부대상황의 분사구문 「with + 목적어(명사) + 목적격보어(전치사구)」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R 교과서 핵심 본문 다시 쓰기

p.057-060

- 01 You have heard or read the story of the tortoise and the hare, haven't you?
 02 But do you know that the story actually has a sequel?
 03 Before getting to that, let's read the first part of the story.
 04 Once upon a time, a tortoise and a hare had an argument about who was faster.
 05 They decided to settle the argument with a race.
 06 They agreed on a route and started off the race.
 07 The hare shot ahead and ran quickly for some time.
 08 Then, knowing that he was far ahead of the tortoise, he thought he would sit under a tree for a short time and relax before continuing the race.
 09 He sat under the tree and fell asleep.
 10 While slowly walking on and on, the tortoise overtook him and soon finished the race.
 11 The hare woke up and realized that he had lost the race.
 12 However, from the ending of this part of the story, the sequel starts.
 13 The hare was disappointed at losing the race and he did some self-questioning for several days.
 14 He should have tried harder at that time.
 15 He had lost the race because he had been overconfident.
 16 Therefore, he challenged the tortoise to another race.
 17 The tortoise agreed.
 18 As soon as the race started, the hare went all out and ran without stopping from start to finish.
 19 Can you guess the result?
 20 He won by several miles.

06 Dreaming of Your Future

- 21 However, the story didn't end there.
 22 This time, it was the tortoise's turn to continue the story.
 23 After losing the race, the tortoise did some thinking and realized that there was no way he could beat the hare in a race the way it was currently designed.
 24 He thought for a while, and then challenged the hare to another race, but on a slightly different route.
 25 The hare agreed.
 26 They started off.
 27 In keeping his self-made promise to go fast and not stop, the hare took off and ran at top speed until he came to a broad river.
 28 The finish line was a couple of miles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29 The hare sat there, wondering what to do.
 30 In the meantime, the tortoise caught up to the hare, got into the river, swam to the opposite bank, continued walking, and finished the race.
 31 Even though the tortoise won the third race, the story still did not end.
 32 The story continues.
 33 The hare and the tortoise, by this time, had become pretty good friends, and they did some thinking together.
 34 Both realized that the previous race could have been run much better.
 35 So they decided to do the last race again but to run as a team this time.
 36 They started off, and the hare carried the tortoise on his back till the riverbank.
 37 There, the tortoise took over and swam across with the hare on his back.
 38 On the opposite bank, the hare again carried the tortoise, and they reached the finish line together.
 39 They both felt a greater sense of satisfaction than they had felt earlier.
 40 For now, the story ends here.
 41 Nobody knows if these two friends will hold another race.
 42 If they do, then what will happen and who will win the race?
 43 Can you guess?

W 교과서 핵심 어휘 확인 문제

p.064

- 01 ④ 02 ② 03 ①
 04 (1) available (2) sweep (3) expert (4) evaluate (5) annoy
 (6) definitely

- 01 ④는 반의어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의어 관계이다.
 ① 짜증나게 하다 ② 직업 ③ 도움 ④ 수평으로 : 수직으로 ⑤ 사교적인
- 02 flavor(맛): 음식이나 음료의 특유의 맛
 ① 탄, 탑승[승선]한; 타고 ③ 내용[주제] ④ 삼키다; 체비 ⑤ 호기심
- 03 property: 부동산; 재산; 건물
 •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 Firth 씨는 그 아파트가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② 글, 기사 ③ 성격, 인격; 개성 ④ 증명서 ⑤ 운영; 수술; 작용; 조작
- 04 (1) 입장권은 매표소에서 이용 가능하다.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2) 테라스의 낙엽을 쓸어 줘라? (sweep: 쓸다, 청소하다)
 (3) Paulson 씨는 프랑스 역사 전문가이다. (expert: 전문가)
 (4) 우리는 캠페인의 성공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evaluate: 평가하다)
 (5) 날 짜증나게 하지 말아 줘. 내가 여기 집중할 수 있게 해 줘. (annoy: 짜증나게 하다)
 (6) 그것들은 분명히 고객 서비스와 제품 품질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definitely: 확실히, 분명히)

C 교과서 핵심 대화

p.065-066

- 01 ④ 02 ①

- 01 관심을 묻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④ '나는 요즘 야구에 빠져 있어.'로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너는 요즘 피곤해 보여.
 ② 나는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③ 나는 시험에서 잘 하지 못했어.
 ⑤ 나를 도와줘서 너에게 감사해.
- 02 ①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SNS를 이용하는 것이 어떠니?'라는 의미로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표현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SNS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의미로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표현이다.

C 교과서 기타 대화

p.067

- 01 T 02 T

- 01 Mason은 요리에 관심이 많다.
 02 A와 B 둘 다 필통과 거울을 가지고 있다.

C 교과서 핵심 대화 확인 문제

p.068

- 01 What do you think about the job of a barista?
 02 I have a lot of interest in watching 03 ②

- 01 '너는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는 「What do you think about ~?」으로 표현하고 동격의 of를 이용하여 영작한다.

- 02 '나는 ~에 관심이 있다'는 「I have an interest in + (동)명사 ~」로 표현한다.
- 03 주어진 문장은 '나는 그것에 매료됐어.'라는 의미로 관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이때 it이 요리를 가리키므로 주어진 문장은 ㉠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G 교과서 핵심 문법

p.069-070

01 which are 02 where

- 01 형용사 앞에 위치한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표가 거의 없다.
- 02 선행사가 the place로 장소를 나타내므로 관계부사 where가 적절하다. 나에게 네가 다음 버스를 계속 기다리고 있던 장소를 말해 줘.

G 교과서 핵심 문법 확인 문제 1

p.071

- 01 (1) Is she your sister who[that] is in the picture?
(2) Look at the dog which[that] is playing with my baby.
(3) I have found the key which[that] you lost yesterday.
- 02 The members playing games need to be honest about this.
- 03 (1) who waiting → (who is) waiting (2) on → on which
(3) serve → who[that] serve 또는 (who[that] are) serving
- 04 things which[that] are necessary to meet

- 01 (1) 전치사구 앞에 쓰인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그녀가 사진에 있는 네 여동생이니?
(2) 현재분사구 앞에 쓰인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내 아기와 놀고 있는 개를 봐.
(3)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나는 네가 어제 잃어버린 열쇠를 찾았다.
- 02 10단어로 써야 하므로 현재분사구 앞의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는 생략하고 써야 한다.
- 03 (1)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who is) wait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는 내 동료이다.
(2)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으므로 on which로 고쳐 써야 한다. 그 결론이 근거를 두었던 정보는 의심스럽다.
(3) 주격 관계대명사만 생략할 수 없으므로 serve 앞에 주격 관계대명사 who[that]를 쓰거나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가 생략된 구조로 보고 serve를 The girls를 수식하는 현재분사인 serv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그 상점에서 일하는[일하고 있는] 소녀들은 주인의 딸들이다.
- 04 6단어로 써야 하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는 생략하지 않는다.

G 교과서 핵심 문법 확인 문제 2

p.072

- 01 (1) the reason (2) when (3) how
- 02 (1) which → where (2) in which → for which
(3) the way how → how[the way]
- 03 (1) how Sarah wanted me to celebrate our 10th wedding anniversary
(2) a restaurant where I can have a party for my son's first birthday
(3) the day when he climbed the mountain
- 04 busiest month, when all the tourists come

- 01 (1) 선행사가 없으므로 관계부사 why가 생략된 the reason이 알맞다. 그녀는 Grace가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2) 선행사가 the time으로 시간을 나타내므로 관계부사 when이 알맞다. 나는 그에게 그가 그 도시에 도착하는 시간을 물었다.
(3) 방법을 나타내는 선행사 the way가 생략된 문장이므로 관계부사 how가 알맞다.

나는 은행에서 당좌 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모른다.

- 02 (1) 선행사 a meeting이 장소를 나타내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므로 which를 관계부사 where로 고쳐 써야 한다. Ruffalo 씨는 정치가 논의되는 모임에 갔다.
(2) 이유를 나타내는 선행사 the reason이 있으므로 in which를 for which로 고쳐 써야 한다. 나는 Ed가 항상 식당에서 불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3) 선행사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생각해야 하므로 the way how를 the way나 how로 고쳐 써야 한다. 그는 그가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다.
- 03 (1) 방법을 나타내는 선행사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데 관계부사를 이용해야 하므로 the way를 생략한다. 이것이 방법이다. Sarah는 내가 우리의 결혼 10주년을 그 방법으로 기념하기를 원했다.
(2) 선행사 a restaurant이 장소를 나타내므로 관계부사 where를 이용한다. 식당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는 제 아들의 첫 생일을 위한 파티를 그 식당에서 열 수 있습니다.
(3) 선행사 the day가 시간을 나타내므로 관계부사 when을 이용한다. 그는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그날 그 산을 등반했다.
- 04 선행사가 month로 시간을 나타내므로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 when을 이용한다.

R 교과서 기타 지문

p.077

01 F 02 T

- 01 네가 커피 맛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면 너는 미래를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
- 02 네가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너는 사교적인 사람이다.

R 교과서 핵심 본문 다지기

p.078-079

- | | | | |
|------------------------------|---------------------|---------------------|-------------|
| 01 are | 02 ~와 같은 | 03 are | 04 꽤, 상당히 |
| 05 부사, 도치 | 06 Take | 07 목적어, 의문사절[간접의문문] | |
| 08 주격 관계대명사 | 09 호기심에서 | 10 who[that] | |
| 11 ~다시[~듯이] | 12 that | 13 충족시키다 | |
| 14 주격보어 | 15 냄새뿐만 아니라 맛의 관점에서 | 16 (to) write | |
| 17 about | 18 swallowing | 19 assigning | 20 where |
| 21 동명사 | 22 getting | 23 sounds | |
| 24 what they get to watch | 25 what | | |
| 26 Nevertheless[Nonetheless] | 27 ~을 명심[유념]하다 | | |
| 28 has | 29 done | 30 be treated | 31 with |
| 32 sweep | 33 takes | 34 to finish | 35 ~에 익숙해지다 |
| 36 with | 37 annoying | 38 가주어 | 39 that |
| 40 to help | 41 to amuse | 42 giving | |
| 43 though they are not all | 44 which[that] are | | |
| 45 advancing | | | |

T 내신 1등급 대비 1회

p.080-091

- | | | | | |
|--|--------------------------|------|---------|------|
| 01 ④ | 02 ⑤ | 03 ② | 04 item | 05 ③ |
| 06 (o)peration | 07 is related to | 08 ③ | 09 ② | |
| 10 That's why I bought it. | 11 ④ | 12 ④ | 13 ③ | |
| 14 ⑤ | 15 I'm fascinated by it. | 16 ④ | 17 ④ | |
| 18 There is a child, I believe is | | | | |
| 19 (1) in which (2) for which (3) in which | 20 ③ | | | |
| 21 ②, ④ | | | | |
| 22 The forests provide the humidity which[that] is necessary for life. | | | | |
| 23 (1) where[at which] (2) in which[of which 삭제] | 24 ③ | | | |

25 reason why she quit her job	26 ④	27 ③	28 ①
29 ⑤	30 ②		
31 Spending hours getting to see, sounds ideal	32 ⑤	33 ④	
34 ②	35 ③	36 ⑤	37 ④
38 ⑤			
39 (c)ertification			
40 special training in activities necessary to keep children occupied			
41 ②	42 ③	43 ⑤	44 ②
45 seemed to be in tune with			

- 01 ④는 반의어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의어 관계이다.
 ① 짜증나게 하다 ② 특유한 ③ 선호 ④ 소비자 : 생산자 ⑤ 열렬한, 열정적인
- 02 ⑤ '존재하거나 성공하거나 건강하기 위해 누군가나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은 dependent(의존하는)에 어울리는 영영 풀이이다. independent는 '자립심이 강한; 독립된'이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직업: 일 또는 직업
 ② 즐겁게 하다: 누군가를 웃거나 미소 짓게 하다
 ③ 한가한, 여유로운: 서두르지 않고 무언가를 느리고 느긋하게 하는
 ④ 부여하다: 특정한 시간, 가치, 장소 등을 무언가에게 주다
- 03 peculiar는 '특유한'이라는 의미이다.
 ① 그 호텔 피트니스 센터는 확실히 방문할 가치가 있다.
 ② 나는 지난 몇 주간 특유한 꿈을 꾸 왔다.
 ③ 그 커플은 아이슬란드에서 증명서를 획득한 첫 번째 사람들이다.
 ④ Sophia는 더 정돈된 방법으로 그녀의 생각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⑤ 그는 매우 사교적이었고 먹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을 즐겼다.
- 04 ① infant(유아): 아기 또는 매우 어린 아이
 ② tag(꼬리표를 붙이다): 무언가에 꼬리표를 붙이다
 ③ expert(전문가): 특정한 주제나 활동과 관계가 있는 높은 수준의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④ mainly(주로): 보통 또는 대체로
- 05 take into account는 '~을 고려하다'는 의미이다.
 ① 누군가는 직업 만족도를 급료 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다.
 ② 다른 추가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하세요.
 ③ 자신만의 장점과 약점을 고려하라.
 ④ 단지 소수의 학생들만 그런 종류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
 ⑤ 놀랍게도 Sarah는 그녀가 연기를 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 06 operation: 운영; 수술
 • 많은 소기업들이 운영 첫 해에 실패한다.
 • Emma는 발목 수술이 필요할 것이다.
- 07 be related to(~와 관계가 있다): 무언가와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다
 개들이 훈련받고 있는 한 가지 방식은 냄새와 관계가 있다.
- 08 요즘 관심사가 무엇인지 묻고 있으므로 관심사를 나타내는 표현인 ③ '나는 영화 보는 것에 관심이 많아.'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나는 더 이상 그림 그리는 데 관심이 없어.
 ② 나는 오늘 밤 영화를 보러 갈 계획이야.
 ④ 나는 게임하는 것보다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
 ⑤ 나는 영화 만드는 방법에 관해 알고 싶어.
- 09 「What do you think about + (동)명사 ~?」는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물을 때 쓰는 표현이다.
- 10 '그것이 바로 ~한 이유이다'는 That's why ~로 표현한다.
- 11 A가 B에게 자신의 필통은 어떤지 물었고 B는 A의 필통 색과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고 답하고 있으므로 ④는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12 상대방의 관심사를 물었으므로 (C) 이야기 창작에 매우 관심이 있다며 관심사를 말하고 (A)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지 물었다고 말하자 (B) 그것에 매우 빠졌으며 장래에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 13 Mason의 관심사를 듣고 굉장하다고 말하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④ boring(따분한)을 wonderful(굉장한)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4 Why not?은 '왜 아니겠어?'라는 의미로 동의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스파게티를 만들어 준다고 약속하면 자신의 탐정 이야기를 읽어 보게 해 준다는 말에 Sure!라고 답한 뒤 이어지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주어진 문장은 ⑥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5 관심을 나타낼 때는 「I'm fascinated by + (동)명사 ~」로 표현한다.
- 16 ④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다.
 ① 나는 그가 Downey 씨 같은 신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② 저 사람은 내가 며칠 전 런던에서 만난 남자이다.
 ③ 그녀는 더 이상 옛날의 그 쾌활한 여자가 아니다.
 ④ 창문이 깨진 그 집은 비어 있다.
 ⑤ Kate는 효과를 잘 알고 있는 미소를 지으며 Brie가 있는 쪽으로 돌아왔다.
- 17 ① 선행사 the way가 생략된 문장으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므로 관계부사 how가 적절하다.
 그것이 그가 그의 음악적 재능을 입증한 방법이었다.
 ② 장소를 선행사로 하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므로 관계부사 where가 적절하다.
 내 어머니가 일하시는 사무실은 내 학교와 가깝다.
 ③ 시간을 선행사로 하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므로 관계부사 when이 적절하다.
 Cruise 씨는 그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때를 그리워한다.
 ④ 시간을 선행사로 하고 빈칸 앞에 전치사 on이 있으므로 관계대명사 which가 적절하다.
 토요일은 내가 친구들과 볼링 치러 가는 날이다.
 ⑤ 이유를 선행사로 하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므로 관계부사 why가 적절하다.
 Jasmine이 우리 동네를 떠난 이유는 미스터리이다.
- 18 관계대명사절 속에 I believe가 삽입되어 있는 형태로 7단어로 써야 하므로 앞에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하고 쓴다.
- 19 (1) 선행사가 the way이므로 in which가 알맞다.
 이 복사기가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2) 선행사가 the reason이므로 for which가 알맞다.
 선생님은 나에게 그녀가 수업을 하지 못했던 이유를 말했다.
 (3) 선행사가 the sea이므로 in which가 알맞다.
 James는 사람들이 수영하고 있던 바다에서 그 고래를 발견했다.
- 20 분사(구), 형용사구, 전치사구 앞에 쓰인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① 좌석 아래 있는 구멍조끼를 입어라.
 ② Stone 씨는 곤경에 빠진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지 알고 있다.
 ③ 나의 먼 친척 중에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다.
 ④ 고객의 마음에 들지 않은 물건은 팔리지 않을 것이다.
 ⑤ 설명서를 인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읽어라.
- 21 장소를 나타내는 bookstore가 선행사이므로 관계부사 where나 「전치사 + 관계대명사」인 at which로 표현할 수 있다.
- 22 형용사구 앞에 쓰인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는 생략할 수 있으므로 단수인 the humidity를 선행사로 하는 which[that] is를 추가하여 쓸 수 있다.
 숲은 생명에게 필요한 습기를 공급해 준다.
- 23 (1)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를 쓸 수 없으므로 that을 which로 고쳐 쓰거나 나 at that을 관계부사 where로 고쳐 써야 한다.
 Jessica는 Cooper가 일하는 미용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2) 방법을 나타내는 선행사 the way의 「전치사 + 관계대명사」는 in which로 표현하므로 of which를 in which로 고쳐 쓰거나 선행사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생략해야 하므로 of which를 삭제해야 한다.
 저자는 그녀가 백만장자가 된 방법에 대해 저술했다.
- 24 ①은 관계대명사가 목적으로 쓰여 생략된 경우이고 ②는 관계대명사가 보어로 쓰여 생략된 경우이며 ④⑤는 관계대명사절 속에 다른 절이 삽입되어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경우로 모두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되어 있다. ③은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가 분사와 함께 쓰여 생략된 경우로 that are이 생략되어 있다.

- ① 이것이 내가 며칠 전에 말한 스마트워치이다.
 ② 요점은 내가 옛날의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③ 그것은 몸이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엔도르핀을 방출한다.
 ④ 그것은 일어난다고 예상했던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었다.
 ⑤ 네가 그들이 작년에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하는 그 학생이니?
- 25 reason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 why절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26 to evaluate와 등위접속사 and로 이어진 병렬 관계이므로 ㉠ writes를 (to) write로 고쳐 써야 한다.
 27 (A) 앞 문장에서 독특하고 낯설게 보이는 직업들이 있다고 했으므로 unusual(특이한)이 적절하다. (usual: 흔한)
 (B) 견주들이 호기심에서 반려견 사료를 조금 맛보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여겨진다는 의미이므로 curiosity(호기심)가 적절하다. (control: 제어)
 (C) 뒤 문장에서 사료를 냄새와 맛의 관점에서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평가한다고 했으므로 quality(품질)가 적절하다. (quantity: 분량)
- 28 주어진 문장은 '하지만 생계 수단으로 반려견 사료를 먹는 사람을 상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① 뒤에서 전문 반려견 사료 감별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은 ①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9 대부분의 반려견 사료 감별사들은 사료를 삼키는 대신 뱉어 낸다고 했으므로 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30 앞에 접속사가 없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므로 ⑥ there를 and there나 관계부사 where로 고쳐 써야 한다.
 31 7단어로 써야 하므로 동명사구 주어를 이용하고, 동명사구 주어는 단수 취급하므로 동사 sound는 단수형인 sounds로 쓴다.
 32 (A) 앞 문장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역접의 연결어 However(그러나)가 적절하다.
 (B) 빈칸 앞은 개인적 선호도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빈칸 뒤는 작업 환경에 대해 거의 불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Nevertheless(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적절하다.
 ① 그러나 마찬가지로
 ② 게다가 예를 들어
 ③ 따라서 그에 반해서
 ④ 예를 들어 다시 말해서
- 33 개인적 선호도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34 특수화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므로 ㉠ amateur(아마추어)를 expert(전문가)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35 (A) 8층 높이라는 의미이므로 복수형인 stories가 적절하다.
 (B) '~하는 데 사용되다'라는 뜻의 「be used + to부정사」 구문이므로 to sweep이 되도록 동사원형 sweep이 적절하다.
 (C) 「It takes + 시간 + to부정사」 구문이므로 to finish가 적절하다.
- 36 (a)(b) 모두 앞 문장의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각각 Therefore(그러므로)와 Accordingly(그런 이유로)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그러나 마찬가지로
 ② 게다가 예를 들어
 ③ 따라서 그에 반해서
 ④ 그러나 다시 말해서
- 37 비행 동안 아이들이 계속 행복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관심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 attendance(출석)를 attention(관심)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38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with + 목적어 + 목적격보어」 형태의 분사구문으로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능동 관계이므로 ⑤ advance를 현재분사 advanc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39 certification(증명서):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음을 알려주는 공식 문서
 40 9단어로 써야 하므로 activities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가 생략된 형태로 써야 하고 「keep + 목적어 + 목적격보어(과거분사)」 구문을 이용한다.

- 41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자신의 창의력을 이용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설명으로 보아 호기심이 많고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 dependent(의존하는)를 independent(자립심이 강한)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42 (A) 앞에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가 생략된 구조이며 선행사가 person으로 행위의 대상이므로 과거분사 interested가 적절하다.
 (B)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므로 those who가 되도록 who가 적절하다.
 (C) enjoy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므로 working이 적절하다.
 43 자신이 선호하는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직업을 찾는 첫걸음이라고 했으므로 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44 여러분이 즐기는 직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묻는 질문으로 글을 시작하고 관심사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라며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 '여러분이 즐기는 직업을 찾는 방법'이 적절하다.
 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직업이란 무엇인가
 ② 여러분의 관심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
 ③ 여러분의 관심사를 찾는 것의 시작
 ④ 세 가지 범주: 아이디어, 사람, 그리고 사물
- 45 '~처럼 보인다'는 「seem + to부정사」로 표현하고, '~와 조화되어'는 in tune with로 표현한다.

T 내신 1등급 대비 2회

p.092~103

01 ⑤	02 ②	03 in terms of	04 ②	05 ③
06 ④	07 ②	08 ⑤	09 fascinated	
10 What do you think about	11 because → why	12 ②		
13 ④	14 ③	15 ④	16 ④	
17 why I couldn't contact you, I didn't know any of your information				
18 (1) ○ (2) to whom I'd choose to confide a secret	19 ④			
20 Only the people who[that] are invited to the meeting can attend the meeting.				
21 how	22 features (which[that] are) available to users			
23 ②	24 ①	25 ③	26 ⑤	27 ④
28 Below are a handful of these unusual jobs.	29 ③	30 ②		
31 premium	32 ②	33 ⑤	34 ④	35 ④
36 ③	37 ②	38 get all my projects completed	39 ④	
40 not only other passengers aboard the flight but also the troubled parents of those children				
41 keeping them calm and giving them all the attention they need to remain happy				
42 They also need special training in activities which[that] are necessary to keep children occupied and well behaved.				
43 ②	44 ④			
45 Trying to understand what you prefer to work with is, in finding the best job for you				

- 01 ㉠ aboard(탄, 탑승[승선]한): 배, 비행기, 또는 기차에 탄
 ㉡ available(이용할 수 있는): 쓸 수 있거나 쉽게 구입하거나 발견될 수 있는
 ㉢ definitely(확실히, 분명히): 의심할 것 없이
 ㉣ orderly(정돈된): 분별 있거나 정돈된 방식으로 배열되거나 정리된
 ㉤ 수직으로
- 02 '맡기다, 배정하다'는 assign으로 표현한다.
 Scully는 항공기 사고를 조사하도록 배정받았다.
 ① 꼬리표를 붙이다 ③ 사고적인 ④ 의존하는 ⑤ 마음을 사로잡다
- 03 '~ 면에서, ~에 관하여'는 in terms of로 표현한다.
- 04 • 나는 이 보고서를 화요일까지 다 처리할 것이다. (be done with: ~을 다 처리하다)
 • 이 건물의 각 부분은 전체와 조화되어 있다. (in tune with: ~와 조화되어)

- 05 ③ deliver는 '연설 등을 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① Samuel은 어리석은 질문으로 그녀를 짜증나게 했다.
 ② 너는 너 자신의 일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상원 의원 Whitman은 강력한 연설을 했다.
 ④ Nolan과 Barnes는 둘 다 운영에 관여했다.
 ⑤ 이 문서의 내용은 그 단체에게는 너무 심오할지도 모른다.
- 06 • 전화로 들리는 목소리는 낯설게 들렸다. (unfamiliar: 낯선, 익숙지 않은)
 • Amy는 처음에 그녀의 친구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amuse: 즐겁게 하다)
 • 그녀는 사실은 그녀만의 특이한 방식으로 매우 친절하다. (peculiar: 특이한)
 • 그는 마지막 커피를 삼키고 계산서를 요청했다. (swallow: 삼키다)
 ④ 상급의, 고급의
- 07 뒤에 형용사가 쓰인 감탄문이므로 ② What을 How로 고쳐 써야 한다.
- 08 「I have an interest in + (동)명사 ~」는 '나는 ~에 관심이 있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사람의 관심이나 흥미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다.
- 09 fascinated(매료된):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게 대단히 흥미를 가지게 된
- 10 빈칸 뒤에서 상대방의 물건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물을 때 쓰는 표현인 「What do you think about + (동)명사 ~?」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1 문맥상 색과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필통을 샀다는 의미이므로 '그것이 바로 ~한 이유이다'는 의미의 That's why ~가 되도록 because를 why로 고쳐 써야 한다. That's because ~는 '그것은 ~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이다.
- 12 농구를 하다가 다쳐 흥미를 잃어서 더 이상 농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흐름이므로 빈칸에는 ② 'lost(잃었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발견했다 ③ 계속했다 ④ 보여 줬다 ⑤ 유지했다
- 13 미래 직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바리스타 양성 과정을 수강할 생각이라고 했으므로 커피숍을 운영하고 싶다는 내용이 되도록 ④ close(중단하다)를 run(운영하다)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4 주어진 문장은 '너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물을 때 쓰는 표현이므로 바리스타 양성 과정을 수강할까 생각 중이라는 말 뒤에 나와 재미있겠다는 응답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되도록 ③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5 민호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싶다는 미래 직업을 염두에 두고 바리스타 양성 과정을 수강할까 생각 중이라고 했으므로 ④는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16 ④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①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은 대개 건강하다.
 ②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일해야 한다.
 ③ 이 책상은 내가 중고로 샀는데 오크 나무로 만들어졌다.
 ④ Colin은 자신이 아주 잘 아는 아이들만 초대했다.
 ⑤ 나와 경쟁했던 연설자는 호감이 가는 여성이었다.
- 17 이유를 나타내는 The reason이 선행사이므로 관계부사 why를 이용한다.
 나는 너의 정보를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너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 18 (1) 보어로 쓰인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으므로 밑줄 친 부분 앞에 who나 that이 생략된 형태가 적절하다.
 그는 항상 용감했던 군인답게 행동했다.
 (2)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때는 「전치사 + 관계대명사」의 형태로 쓰며 이때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으므로 to 뒤에 whom을 추가하여 to whom으로 고쳐 써야 한다.
 Emma는 내가 비밀을 털어 놓기로 선택할 만한 그런 류의 친구이다.
- 19 ④ 이어지는 절에 주어에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that]로 고쳐 써야 한다.
 ① 저곳은 우리가 자주 운동하는 체육관이다.
 ② Julian은 영화 시간에 늦은 이유를 설명했다.
 ③ 내 가족은 그 문제를 다루는 법을 알지 못했다.
 ④ 그들은 오래된 요새로 유명한 도시를 방문했다.
 ⑤ Armie는 그녀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기억한다.
- 20 과거분사 앞에 쓰인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회의에 초대 받은 사람들만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21 • 그들은 마침내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냈다. (~하는 방법: how + to부정사)
 • 사람들은 Stephanie가 4개 국어를 배운 방법을 궁금해한다. (선행사 the way가 생략된 관계사절을 이끄는 관계부사 how)
- 22 features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로 형용사구 앞에 쓰인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 23 (A) the reason을 선행사로 하고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므로 관계부사 why가 적절하다.
 나는 네가 창문을 열어 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 너무 추워!
 (B) 장소를 나타내는 The shop을 선행사로 하고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므로 관계부사 where가 적절하다.
 Simon이 쇼핑하러 간 상점은 문을 열지 않았다.
- 24 ①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전치사 뒤의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to you → to whom you)
 ① 네가 너의 소설을 빌려준 소녀는 우리 반 학생이다.
 ② 도의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그런 짓을 할 수 없다.
 ③ 내가 너에게서 빌린 책들은 지금 절판되었다.
 ④ 당신이 뉴욕 시에서 왔다고 하는 그 새로운 사람인가요?
 ⑤ 내가 소녀일 때를 되돌아보면 나 자신이 부끄럽다.
- 25 ③은 이어지는 절에 주어가 필요하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that]가 들어가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선행사가 시간을 나타내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므로 관계부사 when이 들어가야 한다.
 ① 가을은 사과가 익는 계절이다.
 ② 지금은 딸기가 맛있는 때이다.
 ③ 일요일은 토요일 다음에 오는 날이다.
 ④ 7월은 여름방학이 시작하는 달이다.
 ⑤ 나는 Simpson 씨가 결혼한 날을 기억한다.
- 26 remain은 보어로 형용사를 쓰므로 ⑤ consistently를 consistent로 고쳐 써야 한다.
- 27 뒤 문장에서 여러분의 숨겨진 성격을 찾는 방법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④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은 무엇인지
 ②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무엇인지
 ③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맛을 원하는지
 ⑤ 여러분이 어떤 과목에 흥미가 있는지
- 28 부사가 강조되어 문두로 나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고, '몇몇, 소수의'는 a handful of로 표현한다.
- 29 (A) 주어가 Dog owners로 복수이므로 복수동사 are가 적절하다.
 (B) to evaluate와 등위접속사 and로 이어진 병렬 관계이므로 동사원형 write가 적절하다.
 (C) '~하는 방법'이라는 뜻의 「의문사 + to부정사」 구문이므로 to make가 적절하다.
- 30 주어진 문장은 '전문 반려견 사료 감별사들이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내용으로 이때 such people은 생계 수단으로 반려견 사료를 먹는 사람을 가리키므로 주어진 문장은 ②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31 premium(상급의, 고급의): 매우 높은 품질의
- 32 ⑥는 movies and TV series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online video content taggers를 가리킨다.
- 33 (A) 선행사 media companies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로 관계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므로 관계부사 where가 적절하다.
 (B) 5형식 「make + 목적어 + 목적격보어(형용사)」 구문의 수동태이므로 available이 적절하다.
 (C) 동명사구 주어는 단수 취급하므로 단수동사인 sounds가 적절하다.
- 34 (A) 앞 문장의 내용을 강조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In fact(사실)가 적절하다.
 (B) 빈칸 앞은 개인적 선호도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빈칸 뒤는 작업 환경에 대해 거의 불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Nonetheless(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적절하다.

- ① 그러나 그에 반해서
 ② 게다가 예를 들어
 ③ 따라서 그러나
 ⑤ 사실 다시 말해서
- 35 '~하는 데 사용되다'라는 뜻의 「be used + to부정사」 구문이므로 ④ sweeping 을 동사원형 sweep로 고쳐 써야 한다.
- 36 (A) 앞 문장의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Therefore(그러므로)가 적절하다.
 (B) 앞 문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으므로 In short(요컨대)가 적절하다.
 ① 즉 다시 말해서
 ② 게다가 따라서
 ④ 그러나 비슷하게
 ⑤ 따라서 그러나
- 37 (a)와 ②는 가주어이고, ①은 비인칭주어, ③⑤는 가목적어, ④는 It ~ that 강조 구문이다.
 ① 매일 점점 더 추워지고 있다.
 ② 그가 화내는 것은 꽤나 당연하다.
 ③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다.
 ④ 내가 그녀의 발견에 관해서 읽은 것은 바로 이 책에서였다.
 ⑤ 나는 그녀가 다시 우승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38 '가 ...하게 하다'는 「get + 목적어 + 목적격보어」로 표현할 수 있고, 이때 get의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수동 관계이므로 목적격보어로 과거분사를 써야 한다.
- 39 (A)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으로 문맥상 '짜증스러울 수도 있지만'이라는 양보의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Although가 적절하다.
 (B) '~할 것이 요구되다'라는 뜻의 「be required + to부정사」 구문이므로 동사원형 have가 적절하다.
 (C) 부대상황의 분사구문으로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advancing이 적절하다.
- 40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의미의 B as well as A는 not only A but also B로 바꿔 쓸 수 있다.
- 41 동시동작의 분사구문을 이용하고, 14단어로 써야 하므로 선행사 attention을 수식하는 관계사절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해야 한다.
- 42 선행사 activities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의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가 생략 되었으므로 necessary 앞에 which[that] are를 써야 한다.
- 43 exploring과 등위접속사 and로 이어진 병렬 관계이므로 ② use를 동명사 us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44 즐기는 직업을 찾는 방법에 관한 글로 아이디어, 사람, 사물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인 세 가지 범주로 나눠 언급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④ '관심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능력 ② 잠재력 ③ 강점 ⑤ 경력
- 45 17단어로 써야 하므로 동명사구 주어를 이용하고, 동명사구 주어는 단수 취급하므로 동사는 is로 써야 한다.

 수능형으로 끝내기

p.104~109

01 ⑤	02 ②	03 ③	04 ⑤	05 ②	06 ③
07 ④	08 ⑤	09 ②	10 ⑤	11 ③	12 ④
13 ①	14 ⑤	15 ④	16 ③	17 ⑤	18 ④

- 01 아이들이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에 대한 특별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㉔ distracted(산만해진)을 occupied(바쁜)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02 주어진 문장은 '항공사들은 탑승 중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으로 ② 뒤 문장에 주어진 문장에서 언급한 내용을 the nannies로 지칭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은 ②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3 기내 아이 돌보미들이 어린 아이들을 즐겁게 하고 유아들을 보살피는 일을 한다고 언급했으므로 그들은 아동 심리와 행동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빈칸에는 ③ '심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양육 ② 학대 ④ 발달 ⑤ 보호
- 04 '기내 아이 돌보미'를 소개하는 글이므로 글의 어조로는 ⑤ '정보를 주는'이 적절하다.
 ① 분석적인 ② 설득력 있는 ③ 비판적인 ④ 익살스러운
- 05 some of는 뒤에 나오는 명사의 수에 동사를 일치시키므로 ⑥ is를 복수동사인 are로 고쳐 써야 한다.
- 06 특이한 직업에 관한 글로 (A) 어떻게 특별한 삶(living)을 사는지 알아보자는 내용이 적절하고, (B) 생계를 위해(for a living) 반려견 사료를 먹는다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빈칸에는 ③ '생활 양식; 생계'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호소 ② 변경 ④ 예외 ⑤ 차이
- 07 주어진 문장은 '그들은 또한 반려견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질 높은 사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할 때 사용하는 also가 있으므로 전문 반려견 사료 감별사가 하는 일을 설명하는 내용 뒤인 ④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8 (A) 뒷부분에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에 따른 성격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고려하는 게 현명하다는 의미가 되도록 consider(고려하다)가 적절하다. (neglect: 등한시하다)
 (B) 뒷부분에 언급된 형용사들이 사람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personality(성격)가 적절하다. (preference: 선호도)
 (C) 앞에서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현재의 순간에 열중한다는 의미가 되도록 passionate(열정적인)가 적절하다. (anxious: 불안해하는)
- 09 a way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구이므로 to부정사 to find 또는 of find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10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은 어린 시절 동안 설정되고 여러분의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으므로 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11 아이맥스 스크린을 누가 청소하는지 묻는 주어진 문장 다음에 (B) 스크린의 크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고 (C) 스크린을 청소하는 방법을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A) 청소를 끝내는 데 드는 시간과 청소를 시작하는 시간에 따른 스크린 청소원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 12 get의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수동 관계이므로 to do를 과거분사 done으로 고쳐 써야 한다.
- 13 아이맥스 스크린 청소원은 대개 새벽 2시에 일을 시작한다고 했으므로 ①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14 (A)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장르별로 배정해 꼬리표를 붙이는 일을 한다는 의미이므로 assigning(배정하다)이 적절하다. (combine: 결합하다)
 (B) 영화와 텔레비전 시리즈가 고객들에게 이용되기 전에 시청한다는 의미이므로 consumers(소비자)가 적절하다. (producer: 제작자)
 (C) 영화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작업 환경에 대해 거의 불평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complain(불평하다)이 적절하다. (approve: 승인하다)
- 15 주어진 문장은 '사실 그들은 회사가 제공한 것을 보고 그들의 개인적 선호도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그들은 그들이 시청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 뒤에 추가적인 설명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주어진 문장은 ④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6 '~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다'는 「spend + 시간 + 동명사」 구문으로 표현하므로 ㉔ to get을 동명사 gett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17 (A)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자신의 창의력을 이용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므로 independent(자립심이 강한)가 적절하다. (dependent: 의존하는)
 (B)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상담이나 교수 같은 도움을 주는 직종에서 만족감을 찾는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satisfaction(만족감)이 적절하다. (comfort: 위안)
 (C) 규칙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은 명확하게 규정된 업무를 선호한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defined(규정된)가 적절하다. (uncertain: 분명치 않은)

18 사교적이고 호의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돕는 것을 좋아하며 설득적인 직업에서 만족감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보아 의사소통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빈칸에는 ④ '의사소통'이 적절하다.

① 문해력 ② 사업 ③ 연구 ⑤ 문제 해결

 **서술형으로 끝내기**

p.110~112

- 01 (A) to do → done (B) sweeping → sweep
- 02 It usually takes eight hours to finish cleaning
- 03 그들의 일은 냄새뿐만 아니라 맛의 관점에서 그것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것이다.
- 04 (s)wallowing 05 (1) ④ → giving (2) ⑥ → are
- 06 Although annoying, it's understandable that babies cry
- 07 that are
- 08 where they watch movies and TV series before they are made available to consumers
- 09 (a)ccount 10 sound → sounds

- 01 (A) get의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수동 관계이므로 목적격보어 to do를 과거분사 done으로 고쳐 써야 한다.
(B) '~하는 데 사용되다'라는 뜻의 「be used + to부정사」 구문이므로 sweeping을 동사원형 sweep로 고쳐 써야 한다.
- 02 '~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는 「It takes + 시간 + to부정사」로 표현하고, 빈도부사 usually는 일반동사 앞에 위치한다.
- 03 B as well as A는 'A뿐만 아니라 B도'로 해석하고 in terms of는 '~ 면에서, ~에 관하여'로 해석한다.
- 04 swallow(삼키다): 음식이나 음료가 식도를 내려가 위로 가도록 하다
- 05 ④ 분사구문 keeping과 등위접속사 and로 이어진 병렬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giv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⑥ 주어로 쓰인 Many는 복수 취급하므로 복수동사인 are로 고쳐 써야 한다.
- 06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은 분사구문과 가주어(it)-진주어(that절) 구문을 이용한다.
- 07 형용사구 앞에 쓰인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 08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관계부사절을 이용하고, '이용되는' 것이므로 수동태 구문으로 표현한다.
- 09 '~을 고려하다'는 take into account로 표현한다.
- 10 동명사구 주어는 단수 취급하므로 sound를 단수동사인 sounds로 고쳐 써야 한다.

- 08 Dog food tasters, as their name suggests, taste dog food to make sure it meets a premium brand's quality standards.
- 09 Their job is to evaluate its quality in terms of taste, as well as smell, and write reports about it.
- 10 They also try to think up new ideas on how to make quality food that dogs would really like.
- 11 Don't worry.
- 12 Most dog food tasters spit out the dog food instead of swallowing it.
- 13 An online video content tagger's job is to "tag" movies and TV programs by assigning them to a genre.
- 14 They work for media companies, where they watch movies and TV series before they are made available to consumers.
- 15 Spending hours getting to see the wonderful world of entertainment in a leisurely environment sounds ideal.
- 16 However, they don't get to decide what they get to watch.
- 17 In fact, they watch what their companies give them, and their personal preferences are not taken into account.
- 18 Nevertheless, as serious movie lovers, they rarely complain about their work environment.
- 19 Who cleans those vast, wide IMAX screens?
- 20 Keep in mind that those screens are eight stories high.
- 21 Therefore, it definitely needs an expert who has the specialized, professional skills to get the job done right.
- 22 The enormous screens are really expensive, so they have to be treated with great care.
- 23 A very long pole with a soft wool head (usually made of lamb's wool) at the end is used to sweep across the screen in even rows, horizontally and vertically.
- 24 It usually takes eight hours to finish cleaning one IMAX screen.
- 25 IMAX screen cleaners usually start work at 2 AM.
- 26 Clearly, they have to get used to an unusual work schedule.
- 27 Have you ever been on an airplane with a crying baby on board?
- 28 Although annoying, it's understandable that babies cry because an airplane flight could be an unfamiliar experience for them.
- 29 Many airlines have realized this problem, and have decided to help the troubled parents of those children as well as other passengers aboard the flight.
- 30 The airlines have started offering "nannies" on board.
- 31 Parents can hire the nannies to amuse young children and care for infants, keeping them calm and giving them all the attention they need to remain happy during the flight.
- 32 Many of these "flying nannies" (though not all) are required to have certification and training in child psychology and behavior.
- 33 They also need special training in activities necessary to keep children occupied and well behaved.
- 34 With technology ever advancing, who knows what new and, yes, more unusual jobs are likely to be in the not-so-distant future!

R 교과서 핵심 **본문 다시 쓰기**

p.113~116

- 01 There are jobs nowadays that didn't exist in the early 1990s, like social media manager and app developer.
- 02 Some of them are quite unique and may even seem strange to you.
- 03 Below are a handful of these unusual jobs.
- 04 Have a look at them and see how some people make a peculiar living.
- 05 Dog owners who take a small bite of their pet's dog food, out of curiosity, are considered normal.
- 06 But can you imagine a person who eats dog food for a living?
- 07 Professional dog food tasters are such people.

최종점검 모의고사

Lesson 05 독해 실전 모의고사

p.118~125

01 ②	02 ③	03 ②	04 ③	05 ③	06 ③
07 ⑤	08 ③	09 ③	10 ③	11 ④	12 ②
13 ③	14 ③	15 ④	16 ④	17 ②	18 ③
19 ⑤	20 ③	21 ④	22 ④	23 ⑤	24 ⑤
25 ③					

- 01 문맥상 이야기의 이 부분의 결말로부터 속편이 시작된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⑥ ends(끝나다)를 starts(시작하다)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02 토끼와 거북 이야기의 첫 부분을 읽어 보자는 주어인 글 다음에 (B) 옛날 옛적에 거북과 토끼가 누가 더 빠르지에 대한 논쟁을 끝내기 위해 경주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C) 토끼가 한동안 빨리 달리다가 거북보다 훨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나무 아래에서 쉬었다는 내용이 이어지며 (A) 거북이 천천히 계속 걸어서 경주에서 토끼를 이겼다는 내용의 순서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 03 (a)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으로 주어(the tortoise)와 동사(walk)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현재분사 walking이 적절하다.
(b) 토끼가 잠에서 깨 깨달은 것보다 경주에서 진 것이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대과거(had + 과거분사)의 형태가 되도록 had가 적절하다.
(c) '알고 난 후'라는 의미의 분사구문이 적절하므로 현재분사 knowing이 적절하다.
- 04 거북과 토끼가 누가 더 빠르지 논쟁을 했으며 경주로 그 논쟁을 끝내기 위해 내은 내용은 나오지만 누가 먼저 경주를 제안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③ '누가 먼저 경주를 제안했는가?'는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① 그 경주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이겼는가? (→ 최종적으로 거북이 이겼다.)
② 토끼와 거북은 논쟁을 끝내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 경주를 하기로 결정했다.)
③ 경기 초반에는 누가 앞서 나갔는가? (→ 토끼가 앞서 나갔다.)
④ 토끼는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 토끼는 나무 아래에서 쉬었다.)
- 05 비록 거북이 토끼보다 느리지만 천천히 계속 걸어서 결국 경주에서 우승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요지로는 ③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면 이긴다'가 적절하다.
① 연습이 성공을 만든다.
②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④ 자신감이 성공에 이르는 열쇠이다.
⑤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
- 06 주어진 문장은 '거북이 동의했다'는 내용으로 토끼가 거북에게 다른 경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내용 뒤에 나와 경주가 시작되자마자 토끼가 전력을 다해 멈추지 않고 달렸다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주어진 문장은 ③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7 토끼는 지나치게 자만했기 때문에 경주에서 졌다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빈칸에는 ⑤ 'overconfident(자만하는)'가 적절하다.
① 논리적인 ② 합리적인 ③ 열정적인 ④ 총명함
- 08 (B) 토끼는 경주에서 졌고, 그래서 그가 거북에게 다른 경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내용으로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빈칸에는 Therefore(그래서)가 적절하다.
(C) 그가 몇 마일 차이로 이겼다는 내용과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내용은 상반되는 내용이므로 역접의 연결어 However(그러나)가 적절하다.
① 게다가 그러나
② 게다가 게다가
④ 그래서 게다가
⑤ 그래서 예를 들어

- 09 토끼가 경주에 진 것에 대해 실망하고 그때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을 반성한 후에 다시 거북과 경주하여 이겼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토끼의 심경 변화로는 ③ '후회하는 → 기쁜'이 적절하다.
① 두려운 → 슬픈
② 짜증 난 → 걱정되는
④ 만족한 → 좌절감을 느끼는
⑤ 신이 난 → 실망한
- 10 토끼는 거북에게 다른 경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했으므로 ③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11 (a)빠르고 (b)일관된 것이 느리고 꾸준한 것을 이길 것이다.
① 높은 일시적인
② 높은 일관된
③ 빠른 믿을 만한
④ 빠른 일시적인
- 12 「접속사 + 주어 + 동사」로 이루어진 부사절이므로 분사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접속사는 생략할 수도 있고 명확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생략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After는 그대로 유지하고,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는 같은 경우 생략하므로 he는 생략한 후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가 같고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부사절의 동사 lost는 현재분사형인 los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13 (A) 문맥상 거북이 현재 계획된 방법으로는 경주에서 토끼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no way(방법이 없는)가 적절하다. (other way: 다른 방법)
(B) 토끼가 강에 도착할 때까지 서둘러 출발하여 전속력으로 달렸다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took off(서둘러 떠났다)가 적절하다. (take on: 떠맡다)
(C) 앞 문장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그 이야기는 계속된다는 내용이 되도록 continues(계속되다)가 적절하다. (stop: 멈추다)
- 14 ①②④⑤는 the tortoise(거북)를 가리키고, ③은 the hare(토끼)를 가리킨다.
- 15 동시동작의 분사구문으로 주절의 주어(he)와 동사(wonder)가 능동 관계이므로 ④ wondered를 현재분사인 wonder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⑤ '~하면서'라는 의미는 「in + 동명사」 형태로 표현하므로 동명사 keeping의 쓰임은 적절하다.
⑥ promise는 to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to go의 쓰임은 적절하다.
⑦ '~할 때까지'라는 의미로 뒤에 「주어 + 동사」가 이어지므로 접속사 until의 쓰임은 적절하다.
⑧ 동사 caught, got과 등위접속사 and로 이어진 병렬 관계이므로 swim의 과거형 swam의 쓰임은 적절하다.
- 16 거북이 이겼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절하므로 빈칸에는 양보를 나타내는 연결어 ④ 'Even though(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적절하다.
① ~때문에
② 따라서
③ ~하자마자
⑤ 다른 말로
- 17 거북이 잠시 동안 생각하고 나서 토끼에게 다른 경주로 도전했다고 하였으므로 ②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18 문맥상 토끼와 거북이 팀으로 달릴 것을 결심해서 서로 도와 함께 결승선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적절하므로 ② rival(라이벌)을 team(팀)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9 주어진 문장은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는 내용이므로 토끼와 거북이 함께 결승선에 도착하였다는 내용 다음인 ⑥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20 (A)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이므로 much가 적절하다.
(B) '~한 채로'라는 의미의 with 분사구문으로 「with + 목적어 + 목적격보어(전치사구)」의 어순이므로 with가 적절하다.
(C)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시제가 미래를 대신하므로 현재시제 do가 적절하다.
- 21 토끼와 거북이 서로 도와 함께 결승선에 도착한 상황에서 그들은 전에 느꼈던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꼈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빈칸에는 ④ 'satisfaction(만족감)'이 적절하다.
① 해방감 ② 충성심 ③ 중요성 ⑤ 책임감

- 22 토끼와 거북이 서로 도와 함께 결승선에 도착하였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주제와 어울리는 속담으로는 상부상조를 뜻하는 ④ ‘네가 내 등을 긁어주면 나도 네 등을 긁어줄게.’가 적절하다.
- ① 불에 덴 아이는 불을 두려워 한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② 냄비가 주전자 보고 겁다고 한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③ 사람은 그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⑤ 손 안에 든 새 한 마리는 풀숲에 있는 두 마리 새의 가치가 있다. (남의 돈 천냥 보다 제 돈 한냥)
- 23 옛날 옛적에 베짚이는 여름에 노래 부르고 춤추며 시간을 보내고 개미는 겨울 준비를 위해 열심히 음식을 모았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 (C) 겨울이 오자 베짚이는 먹을 음식이 없어 굶주리게 되었는데 개미가 베짚이 집으로 와서 음식을 나눠줬다는 내용이 오고 (B) 식사 후 베짚이가 개미에게 왜 도와주었냐고 묻는 내용이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A) 여름에 베짚이 덕분에 즐겁게 일할 수 있어서 고마웠다는 개미의 말과 더불어 그 이후 베짚이와 개미가 함께 일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순서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 24 여름에 베짚이 덕분에 개미가 즐겁게 일할 수 있었고, 겨울에 개미 덕분에 베짚이가 굶주리지 않아야 되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각자의 특별한 ㉠ ‘재능(talents)’이 상대의 일을 ㉡ ‘더 가볍게(lighter)’ 만든다는 의미가 자연스럽다.
- ① 기술 …… 더 무거운
 ② 열정 …… 더 행복한
 ③ 재능 …… 더 쉬운
 ④ 노력 …… 더 밝은
- 25 개미가 베짚이에게 당신 덕분에 자신들의 일이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다며 그것에 대해 정말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미가 베짚이에게 고마워서 식량을 나눠준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③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Lesson 06 독해 실전 모의고사

p.126~133

01 ③	02 ③	03 ①	04 ①	05 ②	06 ④
07 ⑤	08 ⑤	09 ②	10 ⑤	11 ①	12 ⑤
13 ①	14 ③	15 ④	16 ②	17 ③	18 ⑤
19 ②	20 ④	21 ②	22 ②	23 ②	24 ⑤
25 ④					

- 01 특이한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의 특별한 생활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므로 ㉠ common(흔한)을 peculiar(특이한)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02 (A) 부사를 강조하기 위해 문두에 나와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문장으로 이때 주어는 a handful of these unusual jobs로 복수형이므로 복수동사 are가 적절하다.
- (B) 앞에 나온 주격보어 to evaluate와 등위접속사 and로 이어진 병렬 관계이므로 (to) write가 적절하다.
 (C) 앞에 선행사 quality food가 있으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적절하다.
- 03 Have a look at them은 ‘그것들을 살펴보세요’라는 의미로 이때 them(그것들)은 문장 바로 앞에 나온 unusual jobs(특이한 직업들)를 의미한다.
- ② 몇몇 사람들
 ③ 반려견 사료 감별사들
 ④ 사회 매체 관리자들
 ⑤ 1990년대 초반의 직업들
- 04 (a)의 앞에 나온 선행사는 Dog owners(개 주인들)이고, (b)의 앞에 나온 선행사는 a person(사람)으로 둘 다 선행사가 사람이고 빈칸 뒤에는 모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적절하다.
- 05 주어진 문장은 ‘전문 반려견 사료 감별사들이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내용이므로, 생계 수단으로 반려견 사료를 먹는 사람을 상상할 수 있냐고 묻는 내용 뒤에 응답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주어진 문장은 ㉡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6 전문 반려견 사료 감별사들은 질 높은 사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려고 노력한다고 하였으므로 ㉣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07 수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색 직업들 중 전문 반려견 사료 감별사에 관한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 ‘수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색 직업들’이 적절하다.

- ① 이색 직업들의 역사
 ② 이색 직업들을 구하는 방법
 ③ 전문 인력들의 다양한 역할
 ④ 질 높은 반려견 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
- 08 주어진 문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그들의 작업 환경에 대해 거의 불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그들(온라인 비디오 콘텐츠 태거)은 회사가 그들에게 주는 것을 보고 그들의 개인적 선호도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내용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주어진 문장은 ㉤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9 ㉤의 they는 ‘movies and TV series(영화와 TV 시리즈)’를 가리키고 나머지 they는 모두 ‘online video content taggers(온라인 비디오 콘텐츠 태거들)’를 가리킨다.
- 10 (A)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media companies이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므로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 where가 적절하다.
 (B) ‘~하는 데 시간을 보내다’는 「spend + 시간 + 동명사」로 표현하므로 동명사 getting이 적절하다.
 (C) 앞에 선행사가 없으므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 11 (a) 여유로운 환경에서 오락물의 멋진 세계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상적이게 들린다는 내용과 그들은 그들이 시청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상반되는 내용이므로 역접의 연결어 However(그러나)가 적절하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
 (b) 그들은 그들이 시청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 뒤에 그들은 회사가 그들에게 주는 것을 본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연결어 In fact(사실)가 적절하다. (In addition: 게다가, On the other hand: 한편)
- 12 그들의 개인적 선호도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13 주어진 문장은 ‘누가 저 매우 크고 넓은 아이맥스 스크린을 청소할까요?’라고 묻는 내용으로 독자의 관심을 일으키는 글의 첫 시작인 ㉠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4 아이맥스 스크린은 8층 높이에 이른다고 하였으므로 ㉢ small(작은)을 enormous(거대한)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5 (A) 주어 they는 스크린을 가리키고 스크린이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수동태 be treated가 적절하다.
 (B) ‘~하는 데 사용되다’는 「be used + to부정사」로 표현하므로 to sweep가 적절하다.
 (C) ‘~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는 「It takes + 시간 + to부정사」로 표현하므로 to finish가 적절하다.
- 16 아이맥스 스크린 청소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청소원들이 어디서 훈련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 ‘아이맥스 스크린 청소원들은 어디에서 훈련받는가?’는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 ① 아이맥스 스크린의 높이는 얼마인가? (→ 8층 높이에 이른다.)
 ③ 아이맥스 스크린을 청소하기 위해 무엇이 사용되는가? (→ 끝에 부드러운 울 소재의 머리가 달린 아주 긴 막대기)
 ④ 아이맥스 스크린 하나를 청소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가? (→ 보통 8시간이 걸린다.)
 ⑤ 아이맥스 스크린 청소원들은 몇 시에 일을 시작하는가? (→ 보통 새벽 2시에 일을 시작한다.)
- 17 (a) 문맥상 ‘탑승 중인 아이’라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주어진 문장은 ‘탑승 중인’이라는 의미의 on board가 되도록 on이 적절하다.
 (b) 아이 돌보미가 비행 동안 아이들을 차분하게 한다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주어진 문장은 calm(차분한)이 적절하다. (loud: 시끄러운)
 (c) 문맥상 많은 항공사가 비행기에 탑승한 아기가 우는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부모를 돕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주어진 문장은 troubled(곤란한)가 적절하다. (entertained: 즐거운)

- 18 아기들에게 비행은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므로 짜증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기가 우는 것은 정상이라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빈칸에는 양보의 접속사 Although(비록 ~이긴 하지만)가 적절하다.
- ① 만약에 ~라면
② ~하는 동안
③④ ~ 때문에
- 19 주어진 문장은 짜증스러울 수도 있지만 비행기에 탑승한 아기가 우는 것은 정상이라는 내용으로 (B) 많은 항공사들이 이 문제를 알고 있고 비행기에 탑승한 다른 승객들뿐만 아니라 곤란을 겪고 있는 그 아이들의 부모를 돕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오고 (A) 항공사들은 탑승 중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C) 많은 이런 '기내 아이 돌보미'가 특별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순서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 20 '기내 아이 돌보미'가 아동 심리와 행동에 대한 자격증과 훈련을 받는 것을 필요로 하는 하지만 모두는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21 비행기에 탑승한 아기가 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들이 제공하는 '기내 아이 돌보미'에 대한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② '항공사가 제공하는 기내 아이 돌보미'가 적절하다.
- ① 탑승한 아기가 우는 이유
③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불만들
④ 많은 항공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⑤ 공항에서 훈련된 기내 아이 돌보미 선택
- 22 딸기 맛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논리적이고 사려 깊은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②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23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을 통해 여러분의 숨겨진 성격을 찾는 방법이 있다며 여러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글이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B)맛을 통해 드러나는 숨겨진 (A)성격 특징
- ① 열정 맛
③ 자신감 냄새
④ 개성 조리법
⑤ 관심 재료
- 24 동명사구 주어는 단수 취급하므로 ㉠ are를 단수동사인 is로 고쳐 써야 한다.
- ㉠ a job을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므로 which의 쓰임은 적절하다.
㉡ 주격보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므로 to find의 쓰임은 적절하다.
㉢ person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로 앞에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가 생략된 구조로 볼 수 있으므로 과거분사구 interested의 쓰임은 적절하다.
㉣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those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이므로 who의 쓰임은 적절하다.
- 25 사물에 초점을 두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정비사, 농부, 또는 프로그래머 같이 손을 사용해서 일하는 것에 만족하고,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과학이나 의학과 같은 분석적인 도전의 분야에서 잘 해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17 with the hare on his back 18 hold another race
19 a greater sense of satisfaction 20 (c)operation
21 (A) plenty of (B) hopeless (C) contributed
22 the grasshopper had no food and found himself dying of hunger
23 After he had a great dinner
24 Before you came along, summer days seemed to go very slowly.
25 the grasshopper's singing and dancing

- 01 sequel(속편): 앞선 이야기에 이어지는 책, 영화, 또는 연극
- 02 ① 의문사절로 쓰인 간접의문문으로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이 되어야 하며 이때 who는 의문사이자 주어이므로 who was faster로 고쳐 써야 한다.
④ 조동사 would 뒤에 쓰인 동사원형 sit과 등위접속사 and로 이어진 병렬 관계이므로 relaxed를 동사원형인 relax로 고쳐 써야 한다.
② decide는 to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to settle의 쓰임은 적절하다.
③ 분사구문으로 주절의 주어(he)와 동사 know가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형 knowing의 쓰임은 적절하다.
⑤ 「접속사 + 분사구문」으로 주어(he)와 동사 continue가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형 continuing의 쓰임은 적절하다. 또는 「전치사 + 동명사구」 형태로도 볼 수 있는데 이때도 동명사 continuing의 쓰임은 적절하다.
- 03 ⑥ 빈칸 앞에는 거북과 토끼가 서로 누가 더 빠르지에 대해 논쟁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빈칸 뒤에는 그들이 경로를 동의하고 경주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결과를 나타내는 연결어 Thus(따라서)가 적절하다.
㉠ 빈칸 앞에는 이야기의 결말로 토끼가 경주에서 졌다는 내용이 나오고, 빈칸 뒤에는 이 결말로부터 속편이 시작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역접의 연결어 However(그러나)가 적절하다.
- 04 '~에 동의하다'는 agree on으로 표현하고, '출발하다'는 start off로 표현한다.
- 05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들 때 접속사는 생략하거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생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he)가 같은 경우 부사절의 주어는 생략하므로 he는 생략하고 동사 walked를 현재분사형인 walking으로 바꿔 쓴다. 이때 6단어로 써야 하므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으로 쓴다.
- 06 그가 잠에서 깨서 깨달은 것보다 경주에서 진 것이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had + 과거분사」 형태의 대과거를 활용하여 had lost로 써야 한다.
- 07 거북과 토끼의 달리기 경주에서 예상과 달리 거북이 토끼를 이긴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예상치 못한 경주의 결과(Unexpected Race Result)'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 08 ① 토끼가 경주에서 진 것에 실망한 것으로 주체가 감정을 느낄 때는 수동 의미의 과거분사를 사용하므로 disappointing을 과거분사 disappointed로 고쳐 써야 한다.
③ 토끼가 실망한 것보다 자만했었던 것이 더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대과거인 had been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② 실망한 것보다 경주에서 진 것이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대과거 had lost의 쓰임은 적절하다.
④ 전치사 without 뒤에는 (동)명사가 나와야 하므로 동명사 stopping의 쓰임은 적절하다.
⑤ 앞에 나온 명사 turn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므로 to continue의 쓰임은 적절하다.
- 09 '~했어야 했다'는 의미로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낼 때는 「should have + 과거분사」 구문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때(에)'는 at that time으로 표현한다.
- 10 (A)와 (B)의 밑줄 친 he는 모두 앞에 나온 the hare(토끼)를 가리킨다.
- 11 글의 흐름상 '그가 몇 마일 차이로 이겼습니다'라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의 차이로'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 by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2 (A) 거북이 경주에서 토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beat(이기다)가 적절하다. (defend: 방어하다)
(B) 토끼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전속력으로 달렸다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at top speed(전속력으로)가 적절하다. (at low speed: 느린 속도로)

Lesson 05 서술형 실전 모의고사

p.134~141

- 01 sequel 02 (1) ① → who was faster (2) ④ → relax
03 ⑥ Thus ㉠ However
04 They agreed on a route and started off the race.
05 While slowly walking on and on 06 he had lost the race
07 Race 08 (1) ① → disappointed (2) ③ → had been
09 He should have tried harder at that time.
10 (A) the hare (B) The hare 11 (b)y
12 (A) beat (B) at top speed (C) wondering
13 ㉠ challenging → challenged ㉡ finishing → finished
14 (a) tortoise (b) river
15 the previous race could have been run much better
16 (A) to run (B) had felt (C) knows

(C) 강 건너편에 있는 결승선을 보고 토끼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wondering(궁금해 하다; ~할까 생각 하다)이 적절하다. (know: 알다)

- 13 ㉠ 앞에 나온 동사 thought와 등위접속사 and로 이어진 병렬 관계이므로 challenging을 동사의 과거형인 challenged로 고쳐 써야 한다.
㉡ 앞에 나온 동사 caught, got, swam, continued와 등위접속사 and로 이어진 병렬 관계이므로 finishing을 동사의 과거형인 finished로 고쳐 써야 한다.
- 14 거북과 토끼가 경주를 했는데, 경주 경로에 (b)강(river)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a)거북(tortoise)이 경주에서 쉽게 이겼다.
- 15 ‘~할 수도 있었다’는 능력의 의미는 「could have + 과거분사」 구문으로 표현할 수 있고, ‘훨씬’은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 much로 표현할 수 있다.
- 16 (A) 앞에 나온 동사 decide의 목적으로 쓰인 to do와 등위접속사 but으로 이어진 병렬 관계이므로 to run이 적절하다.
(B) 전에 느꼈던 것은 주절의 동사 felt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대과거 had felt가 적절하다.
(C) Nobody는 3인칭 단수로 취급하므로 단수동사 knows가 적절하다.
- 17 문맥상 ‘토끼를 그의 등에 업은 채로’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고, ‘~한 채로’는 「with + 목적어 + 목적격보어(전치사구)」 구문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목적어 the hare가 오고, 목적격보어로 전치사구인 on his back이 오도록 배열한다.
- 18 If they do는 ‘만약 그렇다면’이라는 의미로, 이때 동사 do는 앞에 쓰인 hold another race(또 다른 경주를 열다)를 대신해서 쓰인 대동사이다.
- 19 They both felt a greater sense of satisfaction(그들은 둘 다 더 큰 만족감을 느꼈다)을 통해 그들이 경주를 통해 더 큰 만족감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둘 다 그 경주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 경주는 그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주었다.
- 20 cooperation(협력, 협동):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상황
토끼와 거북은 마지막 경주로 팀으로서 달릴 것을 결심했고, 결승선에 다다랐을 때 이전에 느꼈던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꼈다고 했으므로 이 글의 주제는 ‘경주에서 이기기 위한 협력(cooperation)’이 적절하다.
- 21 (A) 벵이는 노래하고 춤추며 여름 날을 보내고 있었고, 반면에 개미는 겨울을 준비할 음식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여름 날에 벵이는 풍성한 식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plenty of(많은)가 적절하다. (a little: 약간의)
(B) 겨울이 오자 벵이는 식량이 다 떨어졌고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했으므로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는 내용이 되도록 hopeless(절망적인, 가망 없는)가 적절하다. (hopeful: 희망찬)
(C) 벵이와 개미가 서로의 일을 가볍게 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재능을 기부했다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contributed(기부[기증]했다)가 적절하다. (conceal: 감추다, 숨기다)
- 22 ‘~가 ...하는 것을 발견하다’는 「find + 목적어 + 목적격보어(현재분사)」 구문을 이용하며 이때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인이므로 재귀대명사 himself를 써야 함에 유의한다. ‘~로 죽다’는 die of로 표현한다.
- 23 밑줄 친 (a)는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은 분사구문으로,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바꾸기 위해 문맥상 알맞은 접속사 After를 쓰고,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사절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같은 the grasshopper인데 대명사로 써야 하므로 he로 써야 한다. 이어서 주절의 동사 시제가 과거이므로 having을 과거시제인 had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24 ‘함께 하다’는 come along으로 표현하고, ‘~인 것 같다’는 「seem + to부정사」 구문으로 표현한다.
- 25 개미는 벵이에게 이번 여름에 당신의 노래와 춤으로 내 친구들과 나는 일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고 당신 덕분에 우리 일은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으며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개미는 벵이의 노래와 춤이 고마워서 벵이를 도와준 것임을 알 수 있다.
개미는 왜 벵이를 도와주었는가?
→ 개미는 벵이의 노래와 춤에 감사했기 때문에 벵이를 도와주었다.

- 01 I am fascinated by it.
- 02 you promise to make me spaghetti
- 03 Well, I have a lot of interested in watching cooking shows on TV.
→ Well, I have a lot of interest in watching cooking shows on TV.
- 04 (A) expire → exist (B) usual → unusual
- 05 how some people make a peculiar living
- 06 (A) curiosity (B) in terms of (C) spit out
- 07 eat dog food for a living
- 08 professional dog food tasters
- 09 (a) evaluate (b) swallow
- 10 ㉠ movies and TV programs ㉡ online video content taggers
- 11 They work for media companies, where they watch movies and TV series
- 12 their personal preferences are not taken into account
- 13 (a) consumers (b) companies
- 14 (1) ㉢ → done (2) ㉣ → is used
- 15 (A) Therefore (C) Clearly
- 16 so they have to be treated with great care
- 17 It usually takes eight hours to finish cleaning one IMAX screen.
- 18 (A) board (B) unfamiliar (C) hire
- 19 (1) ㉢ → giving (2) ㉣ → are required
- 20 necessary to keep children occupied and well behaved
- 21 it is wise to consider what kind of person you are
- 22 ㉠ expressive ㉡ analytical
- 23 (A) categories (B) interested (C) what
- 24 ㉠ (p)ersuasive ㉡ (c)ontent 25 (a) Job (b) Enjoy

- 01 관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나는 ~에 매료됐다’라는 의미는 「I’m fascinated by + (동)명사」로 표현하므로 5단어로 쓰기 위해 I am fascinated by it.으로 영작할 수 있다.
- 02 동사 promise는 목적으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to make로 쓰고, 수여동사인 make는 「make + 간접목적어(me) + 직접목적어(spaghetti)」의 어순으로 배열한다.
- 03 요리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나타내는 상황으로, ‘나는 ~에 관심이 있다’는 「I have an interest in + (동)명사」로 표현하므로 interested를 interest로 고쳐 써야 한다.
- 04 (A) 요즘에는 1990년대 초반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 매체 관리자나 앱 개발자와 같은 직업들이 있다는 내용이 적절하므로 expire(만료되다)를 exist(존재하다)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B) 앞 문장에 몇몇 직업은 독특하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이런 몇몇 특이한 직업들이 있다는 내용이 되도록 usual(흔한, 보통의)을 unusual(특이한)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05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쓰고, ‘(어떤 특정한) 생활 양식[태도]’이라는 의미는 명사 living으로 표현한다.
- 06 (A) 개 주인들이 호기심에서 반려견의 사료를 조금 맛보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curiosity(호기심)가 적절하다. (creativity: 창의력)
(B) 반려견 사료 감별사들이 냄새뿐만 아니라 맛의 관점에서 사료의 품질을 평가한다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in terms of(~면에서)가 적절하다. (in case of: ~의 경우에)
(C) 반려견 사료 감별사들이 사료를 삼키는 대신 뱉는다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spit out(~을 뱉다)이 적절하다. (chew up: 씹다)
- 07 생계 수단으로 반려견 사료를 먹는 사람들을 상상할 수 있다고 묻는 내용 뒤에 전 문 반려견 사료 감별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such people의 구체적인 의미는 people who eat dog food for a living(생계 수단으로 반려견 사료를 먹는 사람들)이 적절하다.

- 08 이 글은 독자들에게 전문 반려견 감별사들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빈칸에는 professional dog food tasters(전문 반려견 감별사들)가 적절하다. 독자들에게 전문 반려견 사료 감별사들을 알려 주기 위해서
- 09 반려견 사료 감별사들은 반려견 사료를 맛보고 (a)평가하지만 그것을 (b)삼키지는 않는다.
- 10 ㉔ 그들에게 장르를 부여한다고 했으므로 them은 앞에 나온 movies and TV programs를 가리킨다.
㉔ 문맥상 앞에 나온 an online video content tagger를 가리키는데 복수형인 them으로 지칭하였으므로 online video content taggers로 바꿔 써야 한다.
- 11 선행사 media companies가 장소를 나타내므로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 where를 이용하여 영작할 수 있는데 계속적 용법에서는 문장 부호 콤마(,)를 포함하는 것에 유의한다.
- 12 문장의 목적인 their personal preferences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쓴 후, 「be동사 + 과거분사」의 형태가 되도록 are not taken into account를 이어서 쓴다.
- 13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 태거들은 (a)고객들보다 먼저 영화와 TV 시리즈를 시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그들의 (b)회사가 그들에게 주는 것만을 시청해야 한다.
- 14 ㉓ 「get + 목적어 + 목적격보어」의 형태로 목적어(the job)와 목적격보어(do)가 수동 관계이므로 목적격보어 do를 과거분사인 done으로 고쳐 써야 한다.
㉔ 주어가 A very long pole(아주 긴 막대기)로 스크린을 닦는 데 '사용되는' 것이므로 동사 uses를 수동태 is used로 고쳐 써야 한다.
㉔ 동사 keep의 목적으로 명사절 접속사 that의 쓰임은 적절하다.
㉔ 선행사 an expert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의 쓰임은 적절하다.
㉔ '~에 익숙해지다'는 「get used to + (동)명사」로 표현하므로 used의 쓰임은 적절하다.
- 15 (A) 앞에는 아이맥스 스크린이 8층 높이에 이른다는 내용이고, 뒤에는 확실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결과를 나타내는 연결어 Therefore(따라서)가 적절하다.
(C) 앞에는 아이맥스 스크린 청소원들은 보통 새벽 2시에 일을 시작한다는 내용이고, 뒤에는 그들은 보통과 다른 업무 일정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연결어 Clearly(분명히)가 적절하다.
- 16 주어와 수동 관계이므로 be treated로 쓰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는 with great care로 표현한다.
- 17 '~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는 「It takes + 시간 + to부정사」로 표현하고, 빈도부사는 일반동사 앞에 위치하므로 It usually takes ~로 쓴다. finish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므로 cleaning이 오는 것에 유의한다.
- 18 (A) 「탑승 중인」 아기라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앞에 전치사 on이 있으므로 on board가 되도록 board가 적절하다. (aboard: 탑승한)
(B) 아기들이 우는 이유로 그들에게 비행은 익숙하지 않은 경험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unfamiliar(익숙하지 않은)가 적절하다. (familiar: 익숙한)
(C) 부모들이 비행 동안 아이들을 돌봐줄 아이 돌보미를 고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hire(고용하다)가 적절하다. (fire: 해고하다)
- 19 ㉓ 앞에 나온 분사구문 keeping과 등위접속사 and로 이어진 병렬 관계이므로 동사 give를 현재분사인 giv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㉔ '~하는 것이 요구되다'는 의미는 「be required + to부정사」 구문으로 쓰고, 주어인 Many는 복수 취급하므로 required를 are required로 고쳐 써야 한다.
㉔ 양보의 의미를 지닌 분사구문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Although annoying의 쓰임은 적절하다.
㉔ 동사 decide는 목적으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to help의 쓰임은 적절하다.
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은 「with + 목적어 + 목적격보어」로 쓰고, 목적어(technology)와 목적격보어(ever advancing)가 능동 관계이므로 With technology ever advancing의 쓰임은 적절하다.
- 20 '~에 필요한'은 necessary로 쓰고, to부정사 뒤에 '~가 ...하도록 하다'는 의미의 「keep + 목적어 + 목적격보어(과거분사)」 구문으로 배열한다.
- 21 가주어 it을 앞에 쓰고 진주어 to consider이 이어지며 의문사절인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쓰므로 what kind of person you are로 영작한다.

- 22 ㉔ 문맥상 감정적으로 '표현하는'이라는 의미로 형용사가 되어야 하므로 express를 expressive로 바꿔 써야 한다.
㉔ 문맥상 대개 '분석적이고' 결단력 있다는 의미로 형용사가 되어야 하므로 analyze를 analytical로 바꿔 써야 한다.
- 23 (A) 「one of + 복수명사」 형태가 적절하므로 복수명사 categories가 적절하다.
(B) person을 수식하는 분사로 person과 interest가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interested가 적절하다. 또한 interested 앞에 「주격 관계대명사(who) + be동사(is)」가 생략된 구조로도 볼 수 있다.
(C) 앞에 선행사가 없으므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 24 ㉔ persuasive(설득력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믿게 하거나 당신이 부탁한 것을 하게 할 수 있는
㉔ content(만족하는): 기쁘고 만족하는
- 25 관심사에 따라 자신이 즐기고 좋아하는 직업을 찾는 방법에 대한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당신이 즐기는 직업을 찾는 방법'이라는 의미가 되도록 빈칸에는 각각 Job(직업)과 Enjoy(즐기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당신이 (b)즐기는 (a)직업을 찾는 방법

Lesson 05 **적중 모의고사**

p.150~158

01 ㉔	02 ㉓	03 crop	04 ㉓
05 I don't think that's necessary.[I don't agree with you.]			
06 I think we can, through text messages		07 ㉓	
08 (c)cautious[careful]		09 ㉔, ㉕	
10 (1) You should have accepted it. (2) She cannot have thrown it away.			
11 ㉔, ㉓		12 should have studied 13 ㉓	
14 (1) ㉔, should not → cannot (2) ㉔, may → should			
15 ㉔, ㉔	16 ㉔	17 ㉔	18 lose 19 ㉔ 20 ㉕
21 I should have calmed myself down, tried to solve		22 ㉔	
23 ㉓	24 end[finish]	25 ㉔	26 ㉕
27 with a pipe in his mouth		28 ㉔	29 ㉔
30 contribute			

- 01 ㉕ '누군가의 성격 또는 체계, 조직, 디자인 등의 결함'은 weakness(약점)에 어울리는 영영 풀이이므로 strength(강점)은 적절하지 않다.
㉔ 서두른: 특히 결과가 나쁘게 서둘러서 행해진
㉔ 양: 시간, 돈, 또는 물질 같은 것의 양
㉔ 이기다: 경기, 경주, 또는 대회에서 가장 많은 득점, 표 등을 얻다
㉔ 글, 기사: 신문 또는 잡지의 특정한 주제에 관한 한 편의 글
- 02 '매우 부끄럽고 애석한'은 '죄책감이 드는'이라는 의미의 guilty와 바꿔 쓸 수 있다. 나는 그녀의 생일을 또 잊은 것에 대해 정말 부끄럽고 애석함을 느낀다.
㉔ 배려하는 ㉔ 부정적인 ㉔ 감정적인 ㉔ 자만하는
- 03 ㉔ clue(실마리): 무엇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해하도록 돕는 정보
㉔ route(경로): 한 장소부터 다른 장소까지의 길
㉔ opposite(건너편의): 다른 쪽에 위치하고 있는
㉔ past(과거): 현재 이전과 현재를 포함하지 않는 현재까지의 기간
- 04 ㉓ on and on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라는 뜻이므로 'Michael은 병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는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㉔ 우리 요트 클럽은 어제 경주를 열었다.
㉔ 만약을 위해서 지갑을 확인해 보는 게 어때?
㉔ 나는 그것을 경제적으로 만들 방법을 알아내지만 하면 된다.
㉔ 그 나라는 이웃 나라를 따라잡고 있는 것 같다.
- 05 빈칸 뒤에서 그럼 너는 뭘 제안하는지 묻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상대방의 제안에 반대하며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할 때 쓰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6 '~라고 생각하다'는 「I think + 주어 + 동사」로 표현하고, '~을 통하여'는 through로 표현한다.
- 07 빈칸 뒤에 I mean ~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한 말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상대방이 한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한번 말해 줄 것을 요청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③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의미로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표현이다.
- 08 어떤 일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에 밝은 면을 보라고 조언하고 있으므로 그런 느린 것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빈칸에는 cautious 또는 careful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9 ① 주절과 시제가 같으므로 현재분사 Baking이 적절하다.
쿠きを 굽다가 그녀는 오븐에 손가락을 데었다.
- ② 주절과 시제가 같으므로 현재분사 Entering이 적절하다.
슈퍼마켓에 들어갔을 때 Andy는 할인 판매 중인 통조림들을 봤다.
- ③ 주절과 시제가 같고 부정형이므로 Not exercising이 적절하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Jonas는 활기가 넘치고 건강해 보였다.
- ④ 주절과 시제가 같으므로 Being이 적절하다.
비빔기 때문에 그 책들은 주로 도서관에서 대여됐다.
- ⑤ 주절의 시제보다 앞서고 부정형이므로 Not having seen이 적절하다.
Ross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 10 (1) '~했어야 했다'는 「should have + 과거분사」로 표현한다.
(2) '~했을 리가 없다'는 「cannot have + 과거분사」로 표현한다.
- 11 주어진 문장은 '영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Jude는 이제 뉴욕을 그의 고향으로 여긴다'는 의미로 문맥상 '~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의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al)though가 생략되어 있다.
① 반소매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Joe는 여전히 더웠다.
②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오는 손님이 거의 없다.
③ 매우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대만 여행을 계획했다.
④ 오른쪽으로 돌면 왼쪽에 꽃집이 보일 것이다.
⑤ 팀을 대표하여 상을 받았을 때 그녀는 감정이 북받쳤다.
- 12 '~했어야 했다'는 「should have + 과거분사」로 표현한다.
- 13 (A) 주어가 행위의 주체이므로 능동 분사구문이 적절하고 학위를 마친 것이 직업을 얻은 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완료 분사구문 Having finished가 적절하다.
첫 번째 학위를 마치고 나는 사무직으로 일했다.
- (B) 문맥상 '축복을 받은'이라는 의미로 주어가 행위의 대상이므로 Being이 생략된 수동 분사구문이 되도록 과거분사 Blessed가 적절하다.
근면한 국민으로 축복을 받아 그 나라는 번영하는 국가가 되었다.
- (C) 주어가 행위의 주체이므로 능동 분사구문 Driving이 적절하다.
구불구불한 시골 길을 차를 몰고 내려가다가 한 남자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 젊은이를 우연히 만났다.
- 14 ⑥ 문맥상 '~했을 리가 없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cannot have + 과거분사」로 고쳐 써야 한다.
⑥ 문맥상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의 의미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should not have + 과거분사」로 고쳐 써야 한다.
⑥ 나는 그 소녀가 그녀의 적절한 수입을 벗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구입했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안다.
⑥ 우리는 모래, 소다, 그리고 석회를 함께 높은 열로 녹여서 만든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본 원료에 대해 모두 알았을 리가 없다.
⑥ 그는 26세였고 그녀는 20세였다. 그녀의 결혼은 축하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⑥ Kate는 내가 얼마나 Ferrie 박사와 인터뷰할 필요가 없었는지와 그것이 잡지사의 시간과 돈 낭비였다는 것에 대해 넌지시 얘기해 주었다.
⑥ 한 남자가 울면서 반복적으로 '당신은 죽지 않았어야 했는데!'라고 말하면서 어느 무덤 앞에서 있었다.
- 15 ⑥ decide는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므로 to settle이 되도록 settling을 동사원형인 settle로 고쳐 써야 한다.
⑥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은 분사구문으로 문맥상 '~하는 동안에'라는 의미이므로 Before를 While[As]로 고쳐 써야 한다.

- 16 주어진 문장은 '토끼는 앞으로 튀어나가 한동안 매우 빨리 달렸다'는 내용이므로 경주를 시작했다는 내용 뒤인 ②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7 결국 쉬지 않고 천천히 계속 걸어 경주를 끝낸 거북이 이겼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요지로는 ④가 적절하다.
- 18 lose(지다): 경기, 논쟁, 선거, 전쟁 등에서 이기지 않다
- 19 '몇 마일 차이로 이겼다'는 내용으로 '~의 차이로'는 전치사 by로 표현하므로 ④ in을 by로 고쳐 써야 한다.
- 20 (A) 앞 문장의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thus(그러므로)가 적절하다.
(B) 앞 문장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역접의 연결어 However(그러나)가 적절하다.
①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② 게다가 예를 들어
③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④ 그렇지 않으면 따라서
- 21 '~했어야 했다'는 지문에 나온 「should have + 과거분사」 구문을 이용하고 '진정하다'는 calm down으로 표현하는데 이때 목적어인 재귀대명사 myself는 반드시 calm과 down 사이에 써야 함에 유의한다.
- 22 강 건너편을 의미하므로 ④ other를 둘 중 나머지 하나를 가리키는 the other로 고쳐 써야 한다.
- 23 (A) 앞 문장의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Consequently(결과적으로)가 적절하다.
(B) 앞 문장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역접의 연결어 However(그러나)가 적절하다.
① 추가적으로 그에 반해서
② 추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⑤ 결과적으로 반면에
- 24 거북이 경주에서 이겼지만 이야기는 계속된다고 했으므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도록 빈칸에는 '끝나다'라는 뜻의 end[finish]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25 (A)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할 수도 있었다'는 의미의 「could have + 과거분사」의 형태가 되도록 could가 적절하다.
(B) decide의 목적어로 쓰인 to do와 동위접속사 but으로 이어진 병렬 관계이므로 to run이 적절하다.
(C) 주절의 동사인 felt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대과거 had felt가 적절하다.
- 26 토끼와 거북은 좋은 친구가 되어 팀으로 경주를 마쳤으므로 이전에 느꼈던 것보다 더 큰 ⑥ '만족감'을 느꼈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
① 분노 ② 관련성 ③ 신랄함 ④ 애정
- 27 '~가 ...한 채로'라는 의미는 부대상황의 분사구문 「with + 목적어(명사) + 목적격보어(전치사구)」를 이용한다.
- 28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인이므로 ② him을 재귀대명사 himself로 고쳐 써야 한다.
- 29 배짱이와 개미는 함께 일하며 그들의 독특한 재능을 기여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① '서로의 일을 더 가볍게 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② 상대가 더 자신감을 갖도록 하다
③ 겨울을 날 식량을 잃는 것을 피하다
④ 경쟁을 할 기회를 보장하다
⑤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도록 돕다
- 30 contribute(기여하다): 돈, 도움, 아이디어 등을 다른 많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에 주다

Lesson 06 **적중 모의고사**

p.159~167

01 ④	02 ③	03 ④	04 lend	05 ⑤
06 I didn't know you were interested in cooking.	07 ②	08 ③		
09 What do you think about my pencil case?	10 ③			

11 ①, ③ 12 looking for the work she had thought was so easy
 13 where 14 you have to understand, I once was
 15 ③, ④ 16 ②
 17 (1) ○ (2) where[and there] many people lost their lives
 18 who carrying → carrying[who was carrying] 19 ③ 20 ⑤
 21 Below are a handful of these unusual jobs.[A handful of these
 unusual jobs are below.]
 22 ⑤ 23 ③ 24 ⑤ 25 ① 26 ② 27 get
 28 ③ 29 ④
 30 With an eye bandaged, he could not write properly

- 01 ④는 반의어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의어 관계이다.
 ① 짜증나게 하다 ② 특유한 ③ 직업 ④ 결단력 있는 : 우유부단한 ⑤ 열정적인
- 02 ③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이용하는 사람'은 consumer(소비자)에 알맞은 영영
 풀이이다. expert는 '전문가'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거대한: 크기나 양이 매우 큰
 ② 즐겁게 하다: 누군가를 웃거나 미소 짓게 하다
 ④ 한가한, 여유로운: 서두르지 않고 무언가를 느리고 느긋하게 하는
 ⑤ 배달하다: 상품, 편지, 소포 등을 특정한 장소나 사람에게 가지고 가다
- 03 personality는 '성격'이라는 의미이므로 character와 바꿔 쓸 수 있다.
 그들의 서로 다른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① 기사 ② 맛 ③ 취향 ⑤ 궁금중
- 04 ① vertical(수직의): 평평한 표면에 90도를 이루는 선에서 위로 향하는
 ② evaluate(평가하다): 어떤 것이 얼마나 좋고 유용하거나 성공적인지 판단하다
 ③ certification(증명서):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하도록 허용되거나 무언가가
 품질이 좋다는 것을 알려 주는 공식 문서
 ④ specialized(전문적인): 특정한 목적, 일의 종류, 장소 등에 맞게 훈련되거나
 설계되거나 개발된
- 05 사역동사 let은 「let + 목적어 + 목적격보어」로 쓰며 이때 목적격보어는 동사원
 형으로 나타내므로 ⑤ to know를 동사원형 know로 고쳐 써야 한다.
- 06 '~에 관심이 있다'는 「be interested in + (동)명사」로 표현한다.
- 07 유진은 Mason이 요리에 관심이 있다는 말에 굉장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②는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08 상대방의 의견을 물을 때는 How do you feel about ~?으로 표현하므로 ③
 What을 How로 바꿔 써야 한다.
- 09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는 「What do you think about + (동)명사 ~?」로
 표현한다.
- 10 중학교 때 농구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에 ⑥
 농구하는 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③ 그 이유를 답하자 ② 그럼
 요즘 관심사는 무엇인지 묻고 ④ 요즘은 영화 보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답하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 11 <보기>의 when은 the day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이고, ①은 선행사 the
 time이 생략된 관계부사이며, ③은 summer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이다.
 월요일은 내가 항상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가는 날이다.
 ① 우리는 그녀가 우리에게 언제 다시 전화할지 모른다.
 ② 나는 어렸을 때 방과 후에 바깥에서 놀곤 했다. (시간 접속사)
 ③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수영하러 갈 수 있는 여름을 매우 좋아한다.
 ④ 그녀의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저녁을 먹고 있었다. (시간 접속사)
 ⑤ 언제 그가 지금보다 연습을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의문사)
- 12 begin은 목적어로 to부정사와 동명사 모두 쓸 수 있지만 10단어로 써야 하므로
 동명사 looking으로 쓰고, 관계대명사절 안에 「주어 + think」 구조의 절이 삽입
 될 때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으므로 생략하여 쓴다. 문맥상 그녀가 찾지 시작
 한 것보다 생각했던 것이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완료 had thought로
 써야 함에 유의한다.
- 13 the place가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이므로 관계부사 where를 이용하여 두 문
 장을 연결할 수 있다.
 백화점은 장소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쇼핑을 하러 갔다.

- 14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보어로 쓰인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 15 (1) the point가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이므로 관계부사 where가 적절하다.
 거기가 네가 실수한 지점이다.
 (2) 선행사 the way가 생략된 관계부사 how가 적절하다.
 저것이 요즘 십 대들이 양말을 신는 방법이다.
 (3) 선행사 the reason이 생략된 관계부사 why가 적절하다.
 그들은 왜 그가 그들에게 그런 나쁜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4) a strange cave가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이므로 관계부사 where가 적절
 하다.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사라지는 이상한 동굴이 있었다.
- 16 ② 전치사 뒤의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으므로 of the windows를 of which
 the windows로 고쳐 써야 한다.
 ① 나는 지난 5월에 당선된 새로운 회원으로서 말하고 있다.
 ② 창문에 방범장치가 되어 있는 그 집은 팔렸다.
 ③ 나는 현재의 내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해 왔다.
 ④ 여름 방학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알고 있니?
 ⑤ 2024년에 완공될 계획인 그 탑은 거의 300미터가 될 것이다.
- 17 (1) 시간을 나타내는 times가 선행사이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므로 관계
 부사 when의 쓰임은 적절하다.
 누구나 혼자 있고 싶어 하는 때가 있다.
 (2) 앞에 접속사가 없으므로 there를 선행사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사절을 이끄는
 관계부사 where나 접속사를 추가하여 and there로 고쳐 써야 한다.
 런던탑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지금은 관광 명소이다.
- 18 분사와 함께 쓰인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는 생략할 수 있으므로 who를
 삭제하거나 who carrying을 who was carry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그 시위자는 올림픽 성화를 봉송하고 있는 선수를 방해했다.
- 19 주어가 Dog owners로 복수이므로 ③ is를 복수동사인 are로 고쳐 써야 한다.
- 20 맛의 관점에서 그것의 품질을 평가한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⑤
 quantity(양)를 quality(품질)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21 부사(구)가 강조를 위해 문두에 위치하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어 「부사(구) + 동
 사 + 명사 주어」의 어순으로 쓴다.
- 22 영화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작업 환경에 대해 거의 불평하지 않는다는 흐
 림이 자연스러우므로 ⑥ haters를 lovers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23 (A) 앞에 접속사가 없으므로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관계부사 where가 적절하다.
 (B) 주어진 they는 movies and TV series를 가리키므로 수동태 are made가
 적절하다.
 (C) 「spend + 시간 + 동명사」 구문이므로 getting이 적절하다.
- 24 개인적인 선호도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⑥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25 (A) 8층 높이라는 의미로 앞의 명사 stories를 수식하므로 형용사 high가 적절하다.
 (B) 「be used + to부정사」 구문이므로 to sweep가 적절하다.
 (C) 「It takes + 시간 + to부정사」 구문이므로 It이 적절하다.
- 26 주어진 문장은 '거대한 스크린은 정말 비싸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다뤄
 야 한다'는 내용으로 ② 뒤에서 스크린 청소 도구와 청소 시간을 설명하고 있으
 로 주어진 문장은 ②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27 (a) get + 목적어 + 목적격보어(과거분사)
 (b) get used to + (동)명사: ~에 익숙해지다
- 28 (A) 아기들에게 비행은 익숙하지 않은 경험일 것이라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unfamiliar(낯선)가 적절하다. (ordinary: 일상적인)
 (B) 아기가 울어 부모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troubled(애를 먹는)가 적절하다. (troublesome: 골칫거리인)
 (C) 아이 돌보미들이 유아들이 계속 평온하도록 즐겁게 하고 보살피는 일을 한다
 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calm(차분한)이 적절하다. (bored : 지루해하는)
- 29 '기내 아이 돌보미들'은 모두는 아니고 다수가 어린이 심리와 행동에 대한 자격증
 과 훈련을 받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했으므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30 부대상황의 분사구문 「with + 목적어(명사) + 목적격보어(분사)」에서 목적어
 (an eye)와 목적격보어(bandage)가 수동 관계이므로 목적격보어를 과거분사로
 써야 한다.